

노대칼럼

8.15 경축사



최학량 목사
세창종교회 원로목사
미주평통(LA)종교분과위원장

오! 8.15 해방의 만세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압박과 설움에서 해방된 민족", "흠 다시 만져보자" 이런 노래가 해마다 8.15 광복절이 되면 시가행진을 하면서 감격의 합성을 질러댔다. 벌써 71번째 맞는 지금은 그 날의 감격이 사라졌다. 작년까지 얼마나 분단 조국이 통일되고 생지육의 땅 북한이 자유를 얻는 대박이 오리라고 떠들어댔는가. 바벨론 포로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한반도에 새로운 기적의 역사가 분단 70년이니 일어나리라고 예언자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분단은 아무 달라진 것이 없이 바람처럼 지나가 버렸다.

이제 71주년을 맞이했다. 조국의 자유 독립을 위하여 주의 종들이, 애국 열사들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희생되었는가. 기억조차 가물가물하는 세대에 이르렀다. 해방의 기쁨으로 들떠 있을 때 6.25의 동족상잔은 엄청난 비참한 비극의 한반도로 돌변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하나님께서 조국에 보내주신 위대한 지도자였다.

"바람엔 손이 없으니 모든 나무를 뒤흔다. 달엔 발이 없으니 하늘을 건너 여행을 한다"는 시를 후손들에게 남겨주셨다. 그는 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반도를 뒤흔다는 역사의 큰 발자취를 남겼다. "오, 주여 이 나라와 이 영혼을 구하소서" 간절히 기도한 믿음의 국부이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애국심이 없다면 그 마음은 여러분의 적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힘을 합쳐서 강하고 풍부하고 문명한 나라를 만들자.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독립의 뜻을 품고 있이라. 가장 중요

한 것은 절망을 내쫓는 것이다." 간절한 소망과 기도가 응답되어 해방되고 급기야 건국대통령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을 다했다. 조국을 위기에서 건져내고 문명을 되찾았다. 경제발전과 건전한 민주국가 건설의 초석이 되었다. 동족상잔의 비참했던 슬픈 역사를 찾아볼 수 없는 오늘의 국가 발전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지사들, 신앙의 선조들의 피가 결음이 되어 오늘의 선진 대한민국으로 세계에 위상을 떨치게 됐다. 아직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다.

71주년...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반도에는 날마다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기도할 때다. 북과 김정은은 하시라도 적화통일을 시행하려고 발광을 하고 있다. 핵, 미사일 장난질을 하며 북한 내부로는 주민통제 수단으로, 국제무대에는 공포정치를 위장한 핵보유국 과시로 압포를 놓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온갖 도발을 일삼고 있다. 한미 혈맹은 급기야 고고도미사일 방어(사드)배치를 결정했다. 성주에 배치한다. 성주가 발각 뒤집혔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됩니다." 북괴의 지령을 받고 있는 여편네가 괴담을 퍼뜨리며 무지한 국민들을 선동했다. 핸드폰 전자파에도 미치지 않는 사드를 사탄은 이런 발작을 일으켜서 제2의 광주병 촛불 시위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우리 국가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다.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일환으로 공짜로 가져오는 것이다. 아무리 공짜라도 국민에게 피해가 되거나 위험이 따른다면 결코 방어적 수단이기는 해도 대통령이 결정하지 못한다. 아무 피해가 없다. 속수무책으로 핵의 공격으로 나라가 멸망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덮어놓고 국익은 아랑곳없이 사사건건 반대와 시위꾼들을 동원 북괴 지령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는 엄벌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공권력과 보안법은 완전히 망가져 있다. 정부의 공권력이나 법조계에 기대할 수 없다. 우리 신앙동지들이 기대하고 의지할 분을 오직 공의의 하나님뿐 이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121:1-2). 한국교회가 이번 71주년 8.15를 기하여 철저한 회개운동과 울부짖는 기도로 국가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8천만의 행복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확실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8.15 경축한다. 그런데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광복절이나 건국절이나 풀어야 할 과제다. 해마다 8.15를 광복절로 지켜왔다. 그러나 사실 광복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연합군의 승리로 얻게 된 것은 반문할 수 없다. 일본이 원자탄의 뜨거운 맛을 보고 무조건 항복해서 덤으로 얻은 해방이기도하다. 광복이라는 말은 주권을 되찾았다는 뜻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때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공식화 하지 못했다. 1948.8.15에 비록 남한만의 단독 정부수립이긴 하지만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는 건국일로 공포했다. 국호도 대한민국으로 공식화 선언됐다. 생일이 없는 사람은 없다. 국가도 생일이 있다.

지난 7월4일 San Pedro 우정의 종각에서 미국독립기념행사를 할 때 "Happy Birthday America" 하고 모두 박수를 치면서 힘차게 축하 노래를 불렀다.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은 되었으나 진정한 광복은 아니었다. 이제 우리는 광복절이라기보다 건국절로 지켜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로 8.15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경축한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같은 목적을 위해 적혈구 생성 촉진 인자인 EPO(erythropoietin)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은 연구진이 저산소훈련용 '고도 텐트'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EPO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과학자들을 불신하고 있었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과학자들의 생각과 일반인의 생각이 크게 괴리돼 있기 때문이다. GMO(유전자변형식품)가 대표적인 경우다. 센터가 수행한 최근 조사에서 과학자들의 88%는 GMO가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다.

반면 GMO가 안전하다고 믿는 일반인은 37%에 불과했다. 일반 대중이 첨단 과학을 불신하는 또 다른 이유로 심리학적인 요인도 잠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가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이다.

이 소설이 쓰여질 당시 상황에서 보았을 때 프랑켄슈타인은 첨단 기술의 결과였지만 소설가 메리 셸리(Mary Shelley)는 이 인조 인간을 괴물처럼 묘사했고, 이런 의도가 대중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역사에 기록되는 인기 소설이 됐다.

지금도 비슷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퓨리서치센터의 분석이다. 최근 난자를 체외에서 수정하는 시험관 아기(vitro fertilization)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많은 대중이 이 기술에 대해 맹렬히 반대하고 있는 중이다.

유전자편집기술도 유사한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이 기술에 대해 세계적으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반 대중들의 두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 프랑켄슈타인처럼 개조인간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작

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퓨리서치센터에서 제시한 첨단 기술들은 이미 세계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유전자편집기술의 경우 세계 각국의 수천 개 연구팀이 다양한 R&D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유전자자기기술은 유전자편집기술을 획기적으로 바꿔놓고 있다.

합성혈액 등의 기술은 지난해 영국의 한 연구팀의 논문을 통해 제기된 기술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혈액을 대체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앞으로 이들 기술 외에도 수많은 기술들이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결론으로, 미국인들은 아직까지 '개조인간'을 위한 신기술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근거가 형성돼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필연적으로 걸리게 되는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신앙적 문제로 인해 부정적 견해를 보인다.

트랜스휴머니즘은 인류가 초(超) 인류로 막 비상하려고 하는데, 도덕이나 종교가 그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들의 관점에서는 생명공학의 발전과 활용을 반대하는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는 결연히 거부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 만이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에서 그 이상의 질적으로 다른 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한다.

교회는 이러한 인본주의적 무신론과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변종과 기도를 통해 인류는 초 인류가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성경의 근본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목회와 회의(상)

회의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개진하고 공통점이나 결론을 모아 의결하는 공동체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회의는 두 사람이 상일 때 성립된다. 한 사람의 사색이나 명상을 회의라고 할 수는 없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과 계층이 모여 이룬 공동체인 탓으로 공동회의, 당회, 제직회, 각 부서 등 회의가 많다. 회의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 싫든 좋은 회의를 피할 길이 없다.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

필자의 경우 회의를 즐기지 않는 쪽에 속한다. 목회 진행상 회의를 피할 수도 없고 회의는 싫고 해서 목회를 내려놓는 날까지 고민거리였다. 태생적으로 회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마치 물 만난 물고기마냥 회의라면 반색을 하고 자기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모 교회에서 평일 새벽기도회 후에 당회를 모이기로 했다. 당회원의 새벽기도회 참석을 독려하려는 발상도 있었고, 늘 부정적이고 반대를 일삼는 당회원 대다수는 새벽기도회 참석을 못하는 사람들이어서 전략적 의도도 있었다. 놀라운 것은 그날 새벽 해외출장을 떠난 사람을 제외하고 전원 출석이었던 것이다. 새벽기도회 참석은 못했지만 새벽기도회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전원 출석이었다. 그러니까 새벽기도회 처방도 특효가 없게 된 셈이다. 그날 아침 당회 진행은 불을 보듯 뻔하다. 새벽 동원에 기분 상한 사람들이 순순했을 리 없기 때문이다.

회의는 '왜, 무엇을, 어떻게'가 분명해야 한다. 왜 모이는가, 무엇을 의논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하는가가 중요하다. 회의는 공공 목적과 유익을 위해 성립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발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 동기가 있어야 한다. 개인 감정의 출구가 되어도 안 되고, 각을 세우고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는 때 문은 의지가 발동해도 안 된다. 회의를 진행하거나 참석하다 보면 부정적인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은 늘 긍정적이다. 그것은 타고나는 것 같다. 수십 차례 각종 회의 때마다 단 한 번도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재정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늘 반대하고 따지를 걸고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자기 편에 탁월하고 정당한 판단임을 내세우지만 목회에는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월간 '목회와 신학' 2012년 11월호는 연말 당회를 작은 특집으로 다루었다. 필자도 "연말 당회 현명하게 진행하라"는 글을 실은 바 있다. 필자 외에 네 사람의 목회자가 자신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당회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하나같이 당회 회의가 좋다든지, 즐겁다든지, 신바람 난다고 쓴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회의 중 가장 어려운 것이 당회라는 공통된 의견들이었다.

필자의 평소 지론은 '회의는 짧게, 기도는 길게'다.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대표기도가 아니라 개인의 기도시간을 말한다. 기도생활을 게을리하거나 개인기도 시간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일수록 대표기도가 길다. 마치 모처럼 돌아온 기회를 만끽하려는 듯 그건 못다한 기도 말을 쏟아보면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성경 66권을 차례로 요약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국 역사를 열거하는 사람, 동서양을 넘나들며 세계 문제를 다 다루는 사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전반을 섭렵하는 사람, 그들의 기도 길수록 설교시간은 짧아진다. 그러나 개인기도는 길수록 좋을 수밖에 없다.

필자의 경우 제직회는 30분을 넘겨 본 일이 없고, 공동회의는 10분을 넘겨 본 일이 없다. 예산이나 결산 회의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당회는 예상을 빚나갈 때가 있고 예상했던 시간을 넘길 때가 있었다. 때론 격론도 있었고, 감론을박으로 긴장이 높아질 때도 있었다. 그리고 결론을 다음으로 미루어야 할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시차는 있었지만 당회원의 반대나 부결로 사안을 접거나 포기한 일은 없었다. 그리고 일단 가결이 되고 나면 어느 누구도 뒷말을 만들어낸다는 일을 꾸미는 사람은 없었다. 이 점은 지금도 당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

iamcspark@hanmail.net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학교 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학교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6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②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③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④ 신앙고백서 1부
- ⑤ 명함판 사진(2"×2") 2매
- ⑥ 입학 전영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① 원서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② 원서접수마감 : 2016년 9월 2일(금) 오후6시
- ③ 입학시험 : 2016년 9월 3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④ 개강부흥회 : 2016년 9월 6일(화) - 8일(목) 저녁 8시
- ⑤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목회서신

그리스도인의 시력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몽골사람은 보통 시력이 4.0일 정도로 눈이 아주 좋습니다. 태국의 모겐족은 시력이 9.0까지 된다고 합니다. 9.0이면 독수리가 보는 것같이 아주 먼 곳에서도 병아리 같은 작은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입니다. 몽골사람이나 모겐족이 그렇게 눈이 좋은 이유는 그들이

늘 초원에서 멀리 보는 습관이 있어서 시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어떤 눈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난의 비바람이 불지만 그 먹구

름과 천둥너머로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성벽이 훼파되고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케 하시는 영적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느헤미야의 꿈은 이루어졌고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습니다. 우리도 환경이 아무리 암울한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소망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11:15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세상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불의와 불법이 난무한다 해도 반드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마침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는 의의 나라가 반드시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골3:1-4의 말씀대로 살아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저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취였음이니라. 우리 생명 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들은 영의 눈으로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그 예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위에 것을 찾고 위에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천국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불온 간 오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난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매기가 하늘을 날다가 바다 속의 고기를 보면 손살같이 물속에 들어가 고기를 물고기는 다시 하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갈매기가 물속에 계속 있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일주일을 세상 속에 살더라도 주일에 다시 교회에 오고 하루를 세상에서 살더라도 새벽에는 다시 성전에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는 천국시민권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jscoffice01@gmail.com

푸 / 른 / 초 / 장

조성근 목사
(갈멜산기도원 담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시며 사람들 역시 모두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는 인정하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는 모시지 않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줄 믿고 떨지만(약2:19)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셨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다니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벨사살 왕의 시대를 지나 메대의 다리오 왕 시대에 이르기까지 왕들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다리오 왕은 세 명의 총리 중 하나인 다니엘을 더 높은 지위에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나라를 위한 왕의 최선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늘 좋은 일에는 나쁜 일도 따라오는 것처럼 여덟의 세력이 가만히 있을 리 없습니다. 결국 왕의 버림을 받고 사자 굴에 던져지지만 하나님도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자 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이방인인 다리오 왕을 통해 세상에 선포되고 또한 전

능하신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단6:26-27). 그래서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 1. 기도는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6:5).

나눔을 경외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지위와 환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대적하여 참소하는 사람

16:24).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2)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기도로 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약한 처지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나약하지 않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기도한다면 그를 알보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들이 없다 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기도하는 엘리사를 아람군사들이 도단 성을 에워싸고 있는 중에 도 하나님은 불병거와 불말로 지

왕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왕의 판단은 결정적입니다. 당연히 왕의 주변에는 많은 모사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아첨의 말에 연약합니다. 칭찬의 소리에 호의적이고 왕의 권력을 위한 청원이라면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작정한 인물들은 타당한 이유와 명분을 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나갔습니다. 참소자들은 왕이 결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습니다. 왕을 위한 일이고 나라를 위한 일로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을 위한 일이 아니고 다니엘을 죽이려

존중하고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렘전2:13).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력 앞에서는 굴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왕의 규례를 어기는 일이 된다할지라도 물러설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단호한 결단이며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삼상12:24). 2)모함꾼들에 대한 응징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땅에서 악한 이들로 인하여 겪게 되는 역울한 일은 자칫 성도의 신앙을 갈등게 할 수 있습니다(시37:1).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갈6:7). 불의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확신은 신앙의 수고가 훗날 아름다운 흔적으로 그리스도로 인한 필박과 고난은 상급이 될 것에 대한 것입니다. 잠시 악인들이 득세한 듯 하지만 반드시 그들은 안개와 같으며 풀의 꽃과 같을 것입니다(시73:17-19). 3)왕의 규례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메대와 파사의 규례에 의하면 왕이라도 만든 금령과 법도를 마음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6:15). 그래서 악한 이들의 의도된 계획에 의해 다니엘은 범법자가 되었고 법대로 사자 굴에 던져졌습니다. 참소자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의 땅에서도 왕의 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 나오고 뜻을 이루었다 기뻐하던 참소자들은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7면으로 계속>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다니엘 6장 19-28절)

들은 다니엘의 기도생활을 약점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중하게 여기는 그의 신앙을 그들은 다니엘을 죽일 좋은 명분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1)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예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를 명령하시고 응답을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얻지 못하는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약4:2).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이제부터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요

1:12). 3)기도가 여론을 이깁니다. 참소자들의 말에 다리오 왕은 설득당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끊임없이 대적들이 도전하지만 우리는 기도로 승부합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기도는 마귀를 이기는 뛰어난 전략입니다(막9:29). 기도는 우리 주위에 뻗돌며 대적하는 무리를 향한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핑계와 핑계와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2. 결정은 왕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6:16).

는 자신들의 계락을 위해 단지 왕을 이용했다는 것을 안 것은 나중이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만든 법으로 총애하는 다니엘을 사자 굴에 던져넣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이 땅의 열 왕도, 방백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주셨습니다(6:22).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전9:1). 1)국무총리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롬13:1). 그래서 세상의 권력도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

On Campus Courses 2016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19-23(9월 19 -23일) DI 8080 Modern Trends in Global Missions(세계선교동향) For D.Ics. Students (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Nelson Jennings

Sept 26-30(9월 26 -30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For D.Ics. Students (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Oct 3-7 (10월 3-7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lter &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신앙과 믿음의 열매
신앙이라는 것이 평소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1불 한 장이 없다고 할 때,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일까? 참 신자에게 어리석은 정답처럼 보이지만 철저하게 세상의 관점만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손을 뻗칠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될 것이다. 삶을 사는 데 그다지 신앙이 꼭 필요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실제로 평소에는 믿음의 유무를 떠나 모두가 비슷비슷하다. 그러나 사람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신앙이 그의

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신앙의 아름다움은 무엇보다 한결같은데 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른 요동함이 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삶을 경영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것이다. 특히, 위기와 어려움이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런 순간에도 자신의 생각과 유익을 좇아 핑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될 때, 그는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결같은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무생물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가 필요하고 사람이 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늘 똑같은 수가 있겠는가?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때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

운 향기보다 사막의 선인장과 영경처럼, 주위사람들을 찌르는 인생이 되었고, 그런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외로움에 쉬 빠져들기도 한다. 한마디로 복 없는 삶의 길을 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본질을 놓치지 않는 복된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더욱 복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신앙은 변화이다. 변화는 말씀의 씨가 뿌려지고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면서 말씀순종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과정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변화의 열매를 보기위한 것

다고 한다. 총장에서 총리로 와달라는 것이다. 그 총장님은 썩내켜하지를 앓았다고 한다. 학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했는데 짧은 세상의 영화를 맛보기 위해, 평생의 학문의 길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된 것이다. 그때 대통령이 한마디를 더 한다. '내가 자네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았는가?' 그 말 한마디에 그는 총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학교로 돌아오지 못할 짧은 총리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현상적인 종용의 기준이 다르기에 외부적인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은한다는 것은 학자로서의 현명함을 넘어서서 그가 가지는 인격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된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거역과 배신의 말세현상 -은혜에 무지한 가난한 광야인생 -

삶을 축복되게 함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과연 평소 나의 신앙의 정체는 무엇이었으며, 내가 또 어떤 모습으로 나의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결국 신자의 인생은 그 신앙과 그에 따른 믿음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다.

한결같은 신앙, 한결같은 은혜
위기 앞에서 인생은 어떤 그대로 살아가던 모습 그대로, 별거벗은 듯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이다. 부모를 온전히 섬기는 자녀들은 가정의 어려움 앞에서 부모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러 가지 발생하는 불편함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털어놓게 되는데, 그 반응은 복이 없는 모습들이다. 그러나 어렵지만,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부모를 이해하고 한결같이 순종할 수 있는 자녀라면 그는 참 복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계명의 복을 받으며 성장하게 될 것이다.

부모 앞에서 한결같이 성숙한 청춘반은 자녀가 되어야 하듯이, 믿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도 한

다. 옷 입는 것이나, 새책들에게는 자연현상인 하품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법이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떤 부부는 서로의 생리현상을 상호교환하면서 노시는 분들도 있음을 본다. 처음에는 장을 보러 갈 때도 화장을 하더니, 나중에는 몸매 웃도 마다않고 나타나는 것이다. 애 키우다 보니까, 가정형편 생각하니까, 가정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처녀 때처럼 화장품도 못사고 아까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가지고 내 아내가 변했다고 투정하거나 한눈파는 남편이 있다면 대단히 복 없는 남편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다.

본질을 놓치는 변화-변질
한 마디로 사람은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이 변함의 시간을 가지다가 그 본질마저 놓치게 될 때에는 그런 본질을 놓친 변화의 상태를 칭하여 변질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본질을 놓친 변화 혹은 변화의 때를 놓쳐버리고 오래 동안 방치된 상태의 변질을 말하는 것이다. 그 증상은 무엇인가? 사람이 변질되면, 악취나는 인생을 드러낸다. 더불어 변화의 아름다

이다.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신, 불신을 막론하고 삶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변화는 아름다운 것임을 보게 된다. 그러나 신자들 가운데에도 변화의 과정을 놓치거나 상실한 사람들이 많아서 악취를 드러내는 변질의 과정을 지나면서 한결같은 향연을 드러낸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임하면 뭔가 대단한 변화의 길이 자신에게 있을 것인데, 이 은혜가 나에게 없다는 것이다.

은혜가 부족한가?
혹자는 은혜를 받으면 자신의 삶을 헌신할 것인데, 아직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해명하는 것을 본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목회자의 신령한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혜는 더 받지 못함이 아니라, 지키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정답이다. 흔히 인생의 불평은 현재적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가 그 대세이다. 그러나 사실 은혜는 현재적이라기보다는 지난간 과거의 일에 대한 현재적 인격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총장을 지내신 분 가운데, 어느 날 대통령이 전화를 했

어떤 분은 자신의 병을 고쳐준 의사에게 고마워서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주었다고 한다. 화장실 갈 때와 올 때가 다르다고 하더니, 그는 아름다운 인격의 소유자인 것이다. 한국의 D대학의 확장 겸 경영학과 교수인 어떤 분은 자신이 어릴 때 공부와 진로를 조언해주고 도와준 분을, 몇십년 세월이 흘러도 잊지 않고 제가 그분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습니 다, 늘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에 대해 신자가 삶을 살면서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간증이 없다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 빈약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은혜를 기억함이 감사의 삶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면 버리지 벌레 같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과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말인가?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른다면, 그는 벌레만도 못한 못난이 인생이 되는 것이다.

(7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어느 교회의 집사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장로와 안수집사 피택을 위한 투표를 곧 하게 되는데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장로와 안수집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있는지요? 너무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것때가 아닌지요?

-동부에서 모 집사

A: 목사가 목회를 하다보면 많이 대두되는 질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3가지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주일 성수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과 소득이 생기면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것이 몸에 배도록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이 3가지를 강조하시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장성하여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부모님의 훈련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것은 교회의 중직이 되는 일입니다. 안수집사와 장로는 교회의 평신도 리더급에 속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견본이요 모범을 보이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날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기본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직함과 권리만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므로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거침들이 되는 것입니다.

십일조는 성도의 기본 의무...교회 중직자는 당연이 해야

십일조는 성도의 기본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현금생활도 교회의 봉사과 같기에 십일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교회의 재정을 채워 주의 일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들릴지 모르나 십일조 즉 성도의 기본 의무도 잘하지 못하는 영적 수준의 사람이 모든 평신도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봉사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딤후 3장을 보면 감독 즉 장로의 자격에 15가지의 자격 기준이 나옵니다.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책망할 것이 없음(Blameness)입니다. 디도서 1장 6절에도 동일합니다. 이 '책망할 것이 없음'은 영어성경을 보면 must be above reproach 즉 비난 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비난 받을 일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경신학자인 이순환 목사님이 쓴 디모데 전서 강해를 보면, 이 단어의 헬라어는 '아네페네프톤'으로 '체포당한 일이 없는, 불잡을 수 없는 즉 육먹을 일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전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비난의 대상이 되는 자가 감독이 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는 자가 중직을 맡으면 교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공공연하게 자격을 십일조로 목사님이 논하였다고 해서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만큼 그런 실수를 현재 중직들이 많이 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보면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약 30%가 십일조를 드리는 정도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짧고 믿음이 약하여 십일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직은 다릅니다. 죄송하지만 교회의 중직 중에도 십일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분이 꽤 많습니다. 십일조도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십일조는 구약의 율법적인 것이라고만 말하는 목사나 언론도 있으나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모든 소득의 심본의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초창기부터 교회가 빨리 독립하고 부흥하게 된 데는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십일조 연보운동을 강조한 것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예장통합은 이단 해제 시도를 철회하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통합총회) 총회장 채영남 목사가 직권으로 이단 단체들(김종일, 다락방(류광수), 레마선교회(이명범), 성락교회(김기동), 안식교, 인터콥(최바울), 지방교회, 큰믿음교회(변승우), 평강제일교회(박윤식)) 및 이단옹호론(로앤저지, 교회연합신문)을 9월에 개최될 101회 총회도 거치지 않고 이단 골레를 벗겨주겠다는 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반드시 그리고 절대적으로 철회되어야만 합니다.

그간 통합총회에서 치리했던 이들에 대해 '화해와 용서' 차원에서 총회 100회기를 기해 한시적으로 사면해 주겠다는 교단 내 정서와 취지와는 달리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위에서 심의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구성된 특별사면위원회에서 뜬금없이 이단을 풀어주겠다는 작금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교단과 더 나아가 한국교계를 생각하고 염려하며 행동해야 할 교단장이 덩달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이나 교계 앞에 큰 우를 범하는 것이요, 본인의 신앙경력에 커다란 흠집이 날 것입니다.

또한 이단사이비 문제는 한국에만 국한하지 않고 해외에 산재해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에게까지도 직, 간접적으로 큰 파문이 일 것은 자명한바 반드시 철회되어야만 하고 앞으로도 이런 황당한 일을 획책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는 15개의 기독교 단체 및 연합회들과 함께 지난 5월 24일자로 1차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이 1차 성명서에 이어 우리는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세계 한인 교회 앞에서 엄중하고도 단호한 요구를 다음과 같이 2차로 천명합니다.

주후 2016년 8월 9일

1. 통합총회는 사안의 심각성 및 중요성을 바로 깨닫고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2. 통합총회 총회장 채영남 목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3. 통합총회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제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독교이단대책협회(대표회장 백남선 목사, 상임회장 박형택 목사)
-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강신권 목사)
-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엄규서 목사)
- 노스캐롤라이나기독교이단사이비대책연구회(회장 조재풍 목사)
- 달라스교회협의회(회장 김승호 목사)
- 대뉴욕교회협의회(회장 이종명 목사)
- 대뉴욕교회협의회 이단사이비대책협의회(회장 유상열 목사)
-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회장 한선희 목사)
- 빅토밸리한인목사회(회장 우정은 목사)
- 애틀란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정윤영 목사)
- 오를라호마한인교회협의회(회장 정홍기 목사)
- 중남부 이단대책위원회(사무총장 이태경 장로)
- 하와이기독교협의회(회장 한익희 목사)
- 하와이이단대책협의회(회장 김순관 목사)
- 하와이장로교회협의회(회장 김순관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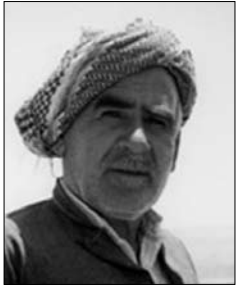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

회 장 김순관 목사 사무국장 한선희 목사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구라니(GURANI)



구라니족은 이란의 종족으로서, 그 아래 바젤라니족(Bajelani)과 하우라미족(Hawrami) 등 많은 하위 종족이 있다. 구라니족은 이란과 이라크 북부의 '쿠르디스탄(Kurdistan)' (쿠르드족의 땅)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종종 쿠르드족(Kurds)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그들의 기원지는 카스피해 근처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어떤 점에서는, 쿠르드족의 팽창에 의해 상당히 동화됐다. 하지만, 그들의 고유어인 구라니어(Gorani)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대로 있다.

쿠르드족은 BC 2400년 이후로 쿠르디스탄을 차지해왔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BC 900-500년에 번성했던 메디아 제국 유목민들인 메데스인(Medes)의 후손이라고 주장한다. 쿠르디스탄 대부분이 7세기에 아랍인들의 정복을 받았다. 그 무렵, 이곳 주민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한 것이다. 쿠르드족들은 쿠르디스탄을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치국의 실체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은 주로 산악지대이며, 험한 지형이 주민들의 생활양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삶의 모습

구라니족은 주로 정착농들이지만 자질있는 군사들도 알려져 있다. 19세기에는 페르시아 군대

에 보병연대급의 1,000-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쿠르드족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페르시아 소속을 완전히 포기했다.

쿠르디스탄에서는 농사와 목축이 주된 직업이다. 주요 작물은 곡물로서, 주로 밀, 보리, 호밀, 귀리 등이다. 그 밖에 면화, 올리브, 벼, 사탕무, 담배 등이 있다. 여름에는 다른 쿠르드족과 달리 구라니족은 양과 염소, 나귀, 노새를 고산 목초지로 몰고 가며, 겨울에는 저지대 평야에서 목축을 한다. 산악 토양은 일반적으로 비옥하지 못하기 때문에 채소재배는 계절적이거나 드물게 한다.

1980년 9월부터 1988년 10월까지 이란과 이라크는 전쟁을 치렀다. 이 8년 동안 약 170만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100만명이 죽었다. 전쟁의 근원은 페르시아인 이란과 아랍인 이라크 사이의 오래도록 계속된 지역경쟁에 있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된 국경분쟁이었다.

1974년, 이란은 이라크 북부에

있는 쿠르드 민족주의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이라크 정부에 대항한 반란을 일으키도록 했다.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은 이어서 이란을 침공했으며, 쉽게 승리를 쟁취하리라고 믿었다. 이슬람공화국에 정권을 가져다준 그전해의 혁명 때문에 이란의 군사력이 상당히 약화되었으리라고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실패했다. 1988년 10월, 격렬한 전쟁은 끝나고 이라크는 종전을 위한 UN의 휴전안을 받아들였다.

보다 최근에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과 이웃 종족들의 삶은 페르시아 걸프전에 의해서 혼란에 던져졌다. 이라크 군대는 쿠르드족 반란군과 시민들을 이란 및 터키의 국경지역으로 몰아냈으며 난민들은 위기에 처해졌다. 전쟁의 여파로 물과 식량이 오염돼 수 천명이 질병에 걸렸다.

신앙

구라니족은 거의 모두가 무슬림이다. 일부는 시아파(Shi'ite) 무슬림이며, 일부는 정통 수니파

(Sunni) 무슬림이다. 시아파의 신앙태는 격렬한 황홀경에 빠지는 걸 추구하며, 수니파는 단순하고 침착하다. 시아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고, 수니파는 운명 결정론이다. 시아파와 수니파는 또한 법과 의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두 집단의 근본주의 신앙은 모두 알라가 모하메드에게 계시한 경전인 코란을 기초로 하고 있다. "알라가 유일신이며 모하메드는 그의 예언자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라마단(람잔)에는 금식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메카 순례를 해야 하는 것이 이슬람의 5가지 기본무다.

이란과 이라크의 문화는 이슬람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 이것은 두 나라의 예술과 문학, 사회구조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이란에는 정부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79년, 시아파 성직자는 이슬람화 개혁운동을 주도했다. 여자들은 전통적인 역할로 돌아가도록 명령받고, 영화관은 폐쇄됐으며, 라디오 방송국은 음악방송이 금지

됐다. 사회적 역할에서의 남녀 차별이 또한 다시 실시됐다. 여자들은 전통 "차도르(chadors, 대개 검고 험렁한 가운으로, 신체를 다 덮고 얼굴까지도 가리는 옷)"를 입게 됐다.

필요로 하는 것들

최근의 걸프전의 결과로서, 이라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다. 기본적인 식량과 의료품이 상당히 부족하다. 물질적으로 이 지역 사람들의 필요는 절실하다.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필요는 훨씬 절실하다. 구라니족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된 어떠한 기독교 자료도 없다. 그들 대부분은 복음의 분명한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쿠르디스탄에서 알려진 구라니 성도는 적은 수에 불과하다.

이슬람이 이란과 이라크의 국교이기 때문에 구라니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 국가들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개방되기 위한 열쇠는 기도뿐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사탄교, 방과후교실 개설로 대중화 선언...한국내서도 활동

미국에서 악마를 숭배하는 사탄교가 대중화를 선언하고 나섰다. 2일 미국 CBS 뉴스는 사탄교의 일종인 '사탄의 신전(Satanic Temple)'이 공립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인 '사탄 클럽'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탄의 신전은 지부가 있는 로스앤젤레스 인근 파노라마 시의 체이스 스트리트 초등학교를 비롯해 애들랜드, 워싱턴DC 등의 초등학교 9곳을 우선 개설 대상으로 지목했다. CBS에 따르면 이는 보수적 기독교 단체가 미국 전역의 공립 초등학교 5%에 해당하는 3500여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인 '굿 뉴스 클럽'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굿 뉴스 클럽은 1937년에 창설된 복음주의 단체인 아동복음주의 펠로우십이 운영하는데, 매주 1회 방과 후 교실을 열어 성경을 강독한다. 이에 비해 사탄의 신전은 종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과학적 합리주의를 강조하는 철학수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에도 동호회 형태로 여러 그룹의 사탄교가 존재한다. 한국내 최초의 사탄교는 '대한사탄교'로 불린다. 이들은 영미권 사탄교 관련 자료들을 우리말로 번역해 회원들과 공유한다. 각 단체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사탄을 유일신으로 숭배하며 기독교적 세계관과 교리를 부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수십 명씩 가입된 소규모의 동호회들은 각자 온라인상에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사탄교 그룹들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반대하고 과학적 합리주의를 중시하는 미국계 사탄교와 달리 영적 수련과 주술, 초능력, 흑마법, 외계인, 프리메이슨 등과 같은 신비주의에 빠져있다.

사탄이란 명칭은 성경에서 나온 단어로 초자연적 존재로서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지칭한다. 기독교에선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로 보고 있으며 '바알세불', '아바돈', '아볼루온' 등으로 불린다.

미 민주당, 기독교 자유박탈 위해 동성애단체와 손잡아

미국 민주당이 동성애자 단체의 도움까지 받으며 미국 기독교의 뿌리를 뽑아 버리려는 활동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기독교 커뮤니티 갯독에 따르면 위키리크스가 몇 주간의 민주당전당대회(DNC) 이메일을 공개하며 그중에 종교적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이메일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베넨슨전략그룹 컨설팅 회사의 부사장인 마이크 제르케가 민주당전당대회(DNC) 커뮤니케이션 감독 등과 연락한 이메일이 유출됐다.

제르케에 따르면 그의 동료가 종교적 자유를 반대하는 'Movement Advancement Project (MAP)'와 2년간 함께 종교적 자유를 없애도록 일하고 있다고 했다. 제르케가 이 일을 위해 지난 5월 16일 오후 1시에 DNC와 회의를 하기 원한다는 이메일이었다.

이 MAP은 설득 전술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동성애/양성애/성전환자 (LGBT) 단체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그들은 정책 만드는 사람들, 여러 조직과 기금자들, 미디어와 미국 대중을 교육하고 설득해 LGBT 운동을 돕는 단체다. MAP은 수십만 달러의 기부금을 받으며 종교적 자유를 없애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위키리크스는 민주당이 종교적 자유를 공격하는 것



은 새로운 일도 아니고 놀랍지도 않지만, MAP과 같은 단체의 도움까지 받으며 미국 시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미국의 기독교 뿌리를 뽑아 버리려는 민주당의 노력은 모든 미국 시민과 특히 기독교인들이 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종교적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투표하기를 당부했다.

오바마, 이란에 실어보낸 4억 달러 현금 미스터리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올해 1월 이란에 현금으로 4억 달러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미 정부는 이 돈이 1979년 이란이 무기를 사기 위해 미국에 송금했던 돈을 되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슷한 때 이란에서 풀려난 미국인 인질 4명의 '몸값'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3일 WSJ에 따르면 미 정부는 올해 초 비밀리에 유로화과 스위스프랑화로 마련한 4억 달러를 나무상자에 담아 이란에 보냈다. 돈은 네덜란드와 스위스에서 인출됐으며 아무 표시가 없는 화물기로 이란에 갔다. WSJ는 이 돈이 지난 1월 16일 이란에서 석방된 워싱턴포스트 테헤란 특파원을 비롯한 인질 4명의 몸값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이 돈이 1979년 이란혁명 직전 팔레비 정권에서 받은 무기대금 4억 달러의 원금과 이자를 합친 17억 달러를 돌려주기로 지난해 이란과 합의한 데 따른 합법적 송금이라고 해명했다. 17억 달러 중 1차로 4억 달러를 보냈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혁명 뒤 무기를 인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WSJ는 "당시 몸값 논란으로 법무부까지 송금에 반대했지만 국무부가 송금을 강행했다"고 후속 보도를 내보냈다. 법무부는 현금이라 몸값으로 보일 수 있고, 자칫 '인질범에게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오랜 전통을 훼손할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는 트위터에 "무능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4억 달러 송금 주장을 제일 처음 시작했다"면서 "또 다른 스캔들이 터졌다"고 공격했다.

기독교 국가 레바논은 어떻게 이슬람화 됐나?

기독교 국가였던 레바논이 이슬람화되어 가는 과정을 폭로한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유튜브에는 '미국을 위해 행동하라!' 대표인 브리짓 가브리엘의 간증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은 '기독교 국가 레바논은 어떻게 이슬람 국가가 되었는가?'란 제목으로 10분 19초 분량이다.

다음은 가브리엘 대표의 간증 내용이다.

나는 중동에 유일한 기독교 국가였던 레바논에서 태어났다.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모른다. 우리는 다문화적이고 개방적이었고 관용적이었다. 다양한 문화를 존중했다.

레바논은 경제적으로 부요했다. 중동 금융업의 중심이었다. 중학교 때 우리는 잘 살았다. 운전사가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나는 사립학교를 다녔다. 레바논에서 삶은 풍요로웠다. 그런데 집에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삶은 달라져 갔다. 문화다양성을 자랑하고 중동의 파리라고 했던 레바논이다. 우리는 중동의 중심에서 꽃 피어낸 문화를 나누고 싶어 국경을 개방했다. 무슬림들이 자녀를 레바논에 유학 보냈다. 레바논 대학



은 훌륭했다. 무슬림 유학생은 졸업 후 레바논에서 일했다.

불행하게도 이 모든 것은 무슬림이 다수가 되면서 변했다. 우리 기독교인은 소수가 됐다. 그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기 때문이다. 레바논은 67%가 기독교인인 기독교 국가로 시작했다. 그러나 무슬림은 중혼을 하고 다자녀를 갖는다. 기독교 여성은 결혼해서 많아 야 1-3명 자녀를 갖는다. 자녀가 태어나면 아이 교육을 걱정한다. 무슬림은 많은 아내를 두고 10명씩 자녀를 낳는다. 10년 안에 인구 비례가 달라진다. 내가 태어난 1960년대 레바논은 무슬림이 다수였다.

70년대에 요르단에서 무슬림이 들어왔다.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한 유일한 국가였다. 이슬람 국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받아들였다. 기독교 국가이기에 학대받는 자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자고 했다.

팔레스타인 무슬림은 레바논에 들어오자 국내 무슬림과 협력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그들은 전쟁을 교회에서 시작했다. 그들은 교회에 주일날 들어와서 예배자들에게 총을 쏘다. 4명이 죽고 100명이 부상당했다. 그렇게 그들은 레바논에서 전면전을 시작했다.

레바논 전쟁을 내전이라고 하는데 레바논 전쟁은 레바논 기독교인들과 무슬림 사이의 전쟁이 아니었다. 그때부터 다른 국가에서 무슬림들이 들어와 전쟁에 참여했다. 전쟁을 하며 아셰르 아라파트가 기반을 잡도록 했다. 그는 유대인을 죽여서 시체를 바다에 버렸다. 그는 레바논의 민주주의, 공정성을 사용해 레바논의 민주주의를 전복했다. 아름다운 국가 레바논은 그렇게 파괴됐다.

그들은 레바논을 폭격하기 시작했다. 내가 사는 도시는 남부의 마지막 기독교 도시였다. 무슬림은 시골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레바논 시골에 군사기지를 점령했다. 나는 군사기지 아래 살았다. 그들은 군사기지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폭탄을 투하했고 우리집도 파괴됐다(1975년). 그때부터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긴 가브리엘 가족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틈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레바논은 시리아와 함께 공식적으로 이슬람교를 국교로 채택하지 않은 아랍 국가로서, 여러 종파를 인정한다. 과거 기독교가 다수를 차지했던 레바논은 현재 이슬람교가 54%로 기독교 40.5%보다 우위를 차지하며 아랍화-이슬람화되고 있다.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나 무슬림 난민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기도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IS, 이라크 북부서 주민 3000명 인질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이라크 북서부 키르쿠르 하위지에서 도망가려던 난민 3000여명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유엔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UN에 따르면 주민들은 4일 하위지를 탈출하려다 IS에 포위됐다. 이후 IS는 주민들 가운데 12명을 살해했다. IS는 주민을 인간방패로 활용하기 위해 불잡은 것으로 추정된다.

IS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연합군이 공격을 강화하면서 이라크 북부 모술 등에서 주민을 인간방패로 삼는 것으로 전해졌다.

NYT "힐러리 대통령 가능성 83%"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83%라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7일 보도했다.

NYT는 최근 주·전국 단위 여론조사와 과거 선거결과 등을 종합해 당선 가능성을 예측했다.

양자 대결을 가정한 분석에서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가능성은 17%로 나왔다. 클

린턴의 당선 가능성은 지난달 19일 NYT의 예측(76%)보다 더 높아졌다.

이번 예측에서 클린턴은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DC 등 모두 51곳 가운데 244명의 대의원이 걸린 20곳에서 우위를 점했다. 트럼프가 우세인 곳은 15곳(대의원 94명)으로 나타났다.

경합지로 분류된 곳은 펜실베이니아, 뉴햄프셔, 오크하이오, 플로리다 등 16곳(대의원 200명)이었다. 이 가운데 클린턴과 트럼프의 우위가 예상된 지역은 각각 7곳, 9곳으로 집계됐다.

정치 분석 전문가인 '538'(미 대선 선거인단 수 538명을 의미)과 '포린스턴 선거 컨소시엄'도 클린턴의 백악관 입성 가능성을 각각 83%, 85%로 내다봤다. '목 폴리틱컬 리포터'와 '프레디와이즈' 역시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을 더 크게 봤다.

클린턴의 당선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클린턴이 트럼프를 상대로 지지율 격차를 더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도 속속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모닝 컨설팅'가 이날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은 46%의 지지율로 37%를 얻은 트럼프에 9%포인트 차이로 앞섰다. 지난달 말 조사에서의 격차 3%포인트(클린턴 43%, 트럼프 40%)보다 지지율 차이는 더 벌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4-5일 유권자 2천1명을 상대로 이뤄졌으며 오차 범위는 ±2%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클린턴(47.5%)은 트럼프(40.5%)를 7%포인트 차이로 눌렀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가 이날 1-4일 유권자 1천2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이 50% 지지율로 트럼프(42%)에 앞섰다.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8%포인트)는 지난달 중순 조사(4%포인트) 때와 비교해 4%포인트 커졌다.

클린턴은 특히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지지율(58%)을 얻어 트럼프(35%)를 23%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이 가운데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의 클린턴 지지율은 57%로 트럼프(38%)보다 19%포인트 높았다. 대학 교육을 받은 백인들은 전통적으로 공화당에 우세한 지지를 보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트럼프(44%)보다 클린턴(50%)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다.

지난달 열린 양당의 전당대회 이후 지지율 면에서 두 후보의 회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로 클린턴은 강한 상승 동력을 얻은 반면 트럼프는 미군 전사자 부모를 상대로 한 '무슬림 비하' 발언 논란 등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지지율이 크게 꺾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의 텃밭 지역에서만저 점진양상이 벌어져 트럼프의 위기감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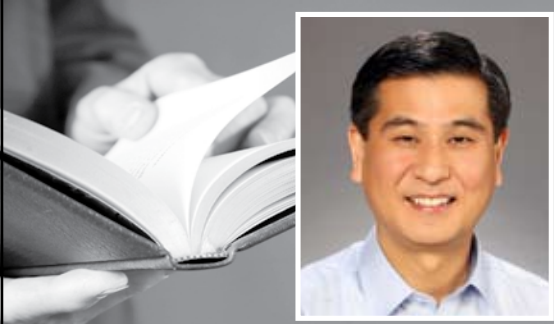
미 CBS가 이날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 애리조나 주에서 클린턴은 44%의 지지율로 트럼프(42%)에 앞섰다. 애리조나는 지난 20년간 한 번도 민주당 후보를 선택하지 않은 공화당 우세지역이다.

네바다에선 트럼프(43%)가 클린턴(41%)에게 근소하게 앞섰다. 버지니아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37%)가 아닌 클린턴(49%)에게 민심이 더 돌렸다. 버지니아는 오랜 기간 공화당의 텃밭이었으나 최근 민주당 쪽으로 기운 지역이다.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버지니아에서 이긴 바 있다.

그동안 인종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던 트럼프를 향한 흑인의 반감이 극에 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미 의회전문지 더힐은 흑인들의 트럼프 지지율이 백인 우월주의단체로 악명 높은 쿨럭스클랜(KKK)의 전 수장 데이비드 듀크보다 낮다고 전했다.

미 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최근 조사에서 흑인 유권자들의 트럼프 지지율은 고작 1%에 그쳤다. 뉴올리언스대학의 서베이 연구센터 조사에선 루이지애나 주의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듀크의 흑인 지지율이 14%로 나타났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64)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신앙의 자유와 경건 (5)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다. 무슨 뜻일까?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원인에 따라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만일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다면, 뭔가 착각하였거나 누군가에 의해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 전혀 새로운 개량품이 개발된다고 해도, 보편적 자연의 이치를 어기는 경우는 없다.

그렇다면 신앙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근거한 신앙을 공유하지만, 개인의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신앙은 이성과 감성 또는 지식과 경험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면이 다른 면에 비해 더욱 강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씨앗처럼 작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콩 또는 팥을 분명 구분처럼 분명한 신앙적 차이가 현저하게 드러난다.

질문: 각 성도가 건전한 신앙의 뿌리를 가져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1) 교회 역사를 보면...

■ 동방에서 서방으로

동방교회의 수도원운동은 일찍이 자리를 잡았다. 개인의 경건을 위해 고독한 수행을 선택했던 수도사들 자연스럽게 모여 작게 출발하였으나 조만간에 전형적인 모습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이집트를 중심으로 수도원 공동체가 확산되면서, 향후 개인 명상과 신비스런 신적 연합을 강조하는 동방종교의 특징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이러한 동방교회의 신학적 특성은 향후 서방교회와 영원한 결별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수도사의 활동과 수도원운동은 오로지 동방교회의 전유물이었나? 아니다. 서방교회의 수도원운동은 중세를 지나오면서

지대한 신학적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널리 알려진 신학자들은 대부분 수도원에서 학문 활동을 하였던 학자들이다. 서방교회의 수도원의 성격을 동방교회와 비교할 때, 생활하는 겉모습은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았지만 근본적으로 달랐던 것이다.

서방교회의 수도원운동 역시 한

에 위배가 되기에 전쟁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결과 체포되어 군 감옥에 투옥되었는데, 두렵거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기로 무장하지 않은 채 적진과 맞서는 군대의 선봉에 서기를 원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이 18세에 군복무를 마칠 수 있었다.

원하였다. 선뜻 이 자리에 응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여, 그에게 병자들을 보살피는 사역을 부탁하여 투르로 오게 하였다. 주교의 자리에 대한 관심이 없던 그는 그들의 눈을 피하여 숨기도 하였지만, 결국 그들의 소원대로 주교직을 수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틴은 수도사라는 신분과 수도원 공동체의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르무티 수도원에서

생활을 하였다.

■ 서방 수도원 전통의 씨앗

비록 수도원운동이 동방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서방교회로 건너왔지만, 마르틴의 신앙은 당시 상황을 비추어볼 때 매우 건전하였다. 이미 언급한 대로, 마르틴은 아타나시우스가 대적하던 아리우스 신학을 최선을 다해 배격하였다. 그가 주교로 재임하는 동안 투르 시의 전통 민간 신앙을 뿌리 뽑기 위해 이방 종교의 신전과 우상을 파괴하였다. 일부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행하였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았다.

비록 마르틴은 이성적이며 지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감성적이며 신비한 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다. 마르틴과 동시대에 살았던 솔피티우스 세베루스(Sulpitius Severus)라는 작가에 의해 저술된 그의 일대기를 통하여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 수 있다. 물론 마르틴의 삶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져나갔지만, 은혜는 기억하고 지킬 때에, 그 은혜는 본인이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원망과 탄식으로 점철된 자신의 그 과거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못했던 시간들 -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시간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은혜는 지킴으로 누리는 것

개인을 넘어서 교회와 민족도 마찬가지로이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교회가 예전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최근 방문길에 새벽기도 후에

으로, 전체가 27장으로 짧게 구성된 흥미로운 책이다. 저자는 1장에서 자신이 글을 기록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몰두한 마르틴의 삶을 자세히 살핀 장본인으로서 일종의 책임감을 갖게 된 것이다. 계속하여 주의 교회 안에 마르틴과 같이 참된 지식을 추구하고 선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신적 덕행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이었다. 자연히 저자는 마르틴이 일반 사람과 매우 다른 특별한 인물이었음을 강조하려는 모습이 이 책에 역력하게 보인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3장의 소제목은 “마르틴에게 나타난 예수님”이다. 마르틴이 군인으로 복

계속적으로 마르틴이 놀라운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었다.

우리는 마르틴의 일대기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수도승이 되고 수도원을 찾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전통적으로 서방교회는 동방교회와 비교해 볼 때에 이성과 지식을 강조하는 신학을 발전시켰다. 시간이 흐를수록 동방과 서방 교회의 차이가 심화되었다. 중세에 접어들면서 학문으로서의 신학의 발전을 중시하던 수도원의 공헌이 두드러진 것이다. 그러나 서방교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수도원은 초기부터 개인의 경험과 신비적 체험을 중요시하는 전통을 유지하였다. 씨앗의 역할을 하였던 마르틴의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향후 이성과 감성 또는 지식과 경험 사이에 균형이 잡힌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지만,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침으로 인해 교회의 영적 질서가 깨어지는 일이 자주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2) 성경이 보인다 - 누가복음 13:6-9; 요한복음 15; 갈라디아서 5:16-26

건전한 성도는 반드시 양질의 열매를 맺게 되어있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신앙 인격과 성품이다. 남을 의식해서 만들어내는 말과 행동이 아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그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은 그가 지닌 신앙의 뿌리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영적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는 그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와 영적 교제를 유지하고 누린다는 양면을 포함한다. 건강한 성도는 머리와 가슴으로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환경이나 유혹에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건고한 신앙인이 지닌 특성 중에 하나는, 이성과 감성 또는 지식과 경험 중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5면에서 계속)

그러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게 될 때 그 인생은 복된 여정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6.25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미군에 입양된 어떤 사람에게 그가 태어난 조국 대한민국은 원망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자신의 생명과 삶을 돌보아 주지 못해 버림받게 된 자신의 인생의 회한만큼 한이 맺힌 나라였던 것이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종군기자의 사진 속에서 동생으로 보이는 아이를 엮고 자신의 손을 붙잡고 황급히 피난을 떠나는 한 여인의 모습 속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의 어머니가 전쟁 통에도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신을 살리려 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앞에, 평생의 모든 회한과 원망을 내려놓았다는 것이다. 사진 한 장의 감격이 원망을 감사로 역전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사진 한 장으로도 은혜를 발견한 인생은 새로운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광야인생길에 은혜를 지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이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곳이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스승과 멘토가 있는 사람은 크게 망하지 않는 것을 본다.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좃을 때, 영

원한 승리가 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좃는 것이 무엇인가? 광야인생길에서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는 것이다.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권세가 패소버(Passover)하였던 그 은혜를 기억만 하여도, 수많은 위기의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영적세력보다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이다.

광야인생길에 온갖 사건사고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 성경은 말세의 현상 가운데 부모를 거역함과 은혜를 저버리는 배신의 일들에 대해 언급한다. 부모의 목살을 잡기도 하고, 심지어 낳아준 부모를 살인하는 일들까지 보게 된다. 현상에 대한 이유와 설명은 다양할 것이지만, 결국 은혜를 기억하지

못함으로 그 인생이 스스로 멸망의 길에 휩쓸려 가는 것이다. 이민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역자나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는 경우를 듣고 보게 된다. 어리석기가 그지없음을 생각한다. 은혜는 기억하고 지킬 때에, 그 은혜는 본인이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원망과 탄식으로 점철된 자신의 그 과거는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지 못했던 시간들 -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시간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은혜는 지킴으로 누리는 것

개인을 넘어서 교회와 민족도 마찬가지로이다.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교회가 예전의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된다. 최근 방문길에 새벽기도 후에

아침집회를 하는 식당을 찾기 어려워 아파트 공사현장 인부들의 식당에서 조찬을 한 기억이 난다. 이유를 물어보니, 밤 문화가 발달해서 새벽 1-2시까지 장사를 하기에도 도저히 새벽을 깨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1천명이 모이는 교회에도 새벽기도회 숫자는 100명이 채 안되는 것을 본다. 밤 문화가 발달해서 흥한 나라가 역사에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아니지 않는가?

조국의 경제적 부흥을 가져온 새마을운동도 그 첫 주체가의 시작이 교회 새벽기도 종소리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새벽부터 울리는 교회의 종소리에 온 민족이 잠을 깨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간구하며 가난으로 점철된 연쇄적 어려움을 이겨내어 왔는데, 조국의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것은

그 은혜를 잊어버림이 아닌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게 될 때,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과 나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데는 아쉬운 마음을 가진다.

개인이나 교회나 민족이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거역과 배신과 배반을 통해 스스로를 복되지 못한 길로 이끌어 가게 될 때 그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한다. 말세현상의 경고에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이다. 지혜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 작은 인연과 도움에도 그것을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그런 이들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인도하는 광야 승리자의 인생을 허락하실 것이다.

davidnjeon@yahoo.com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롬 12:2).

3. 사자 굴에는 사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6:22).

참소자들은 불의의 법과 굶주린 사자들을 통해 다니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아래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게 다고 자신들이 생각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 다(시10:4). 자신의 계략과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의 모사는 적중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존귀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사자 굴은 굴이 아니었습니다.

1)사자 굴도 천사 굴이 되었습니다

사자 굴에 사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그 공간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공간이었습니 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습니 다. 고난만 있지 않고 은혜도 있습니 다.

2)사자 굴은 다니엘을 증명하는 기회입니다

죽어야 할 사람이 죽지 않으면 달리 생각해 봐야 할 일입니다. 다니엘이 그렇습니 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탄 알렉산드리아 배가 광풍으로 파선될 위기를 만났습니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대로 벨리데라는 섬에 모두 구조를 받게 되지만 바울은 독사에 물리게 됩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죽어야 할 운명의 사람

로 육지에서 죽게 되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죽지 않았고 원주민들은 돌려 생각하여 그를 신이라 생각했습니다(행28:6). 이 사건으로 오히려 바울은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되고 로마로 항해할 모든 것을 도움 받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오히려 그의 존재를 증명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3)사자 굴은 악인들을 위해 필요했고 하나님이 증거 되는 계기가 됩니다.

참소하는 자들을 맞서기에는 다니엘은 연약했습니다. 왕도 어찌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간교한 계략은 치밀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은 다니엘을 위해 준비된 것이니 다. 하지만 정작 굶주린 사자들

은 참소자와 그들의 처자들을 삼켰습니 다(6:24). 에스더에 하만은 유대인들을 죽일 계획과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개를 달기 위해 높은 나무를 준 비쳤지만 그 나무에 달린 사람은 자신이었습니다(에8:7).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악인들의 뒷과 올무는 그들 자신에게 정죄와 심판이 됩니다.

살아난 다니엘을 통해 다리오왕은 그의 관할 아래의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려 다니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6:26-27).

이제 사건을 통해 밝혀졌습니 다.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져주시

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이 시대에 기도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에 휩쓸리는 연약한 자들에게 모든 결정은 그들의 의한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한 것임에 대해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는 복음 확장의 뜻도 담겨 있음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환란과 고난도 복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 다. “다니엘이 다리오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통통하였더라”(6:28).

리더십 코멘터리 (23)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위기시대와 리더의 용기

지금 이 사회가 위기

지금 이 사회가 위기이다. 위기란 무엇인가? 위기인데 위기인 줄 모르는 것이 위기이다. 또한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 위기이다. 사회와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자기 혼자만 살겠다. 소수리치는 사람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개인과 조직과 사회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위기는 보직이 드러나는 진실의 순간이다.

‘위기를 기회로’란 말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위기가 기회로’ 되는 것은 흔치않고 복잡하다. 왜냐하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가 나서 흔적도 없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리더여, 비가 온 후 땅이 굳어지는지 산사태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지의 차이는 리더십과 리더의 용기에 달려있다.

리더여, 두려워말고 희망을 선포하라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혼란의 늪에 빠져 어쩔 줄 모르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세상에 알리고 싶어 한다. 혼란 속에서 악성 루머가 생겨날 때일수록 리더는 흔들림 없이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위기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두려워하거나 당황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결코 안 된다.

리더여, 두려워말고 당황하지 마라. 위기 상황에서 리더의 가장 큰 도전은 조직구성원, 국민과 상도들이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책임을 맡은 리더가 개인과 조직의 내일과 앞날에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구성원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을 때 상처는 회복되고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 리더여, 희망을 선포하고 그것을 커뮤니케이션하라.

리더의 대처 능력은 위기 상황에서 구성원들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지도가 되어준다. 리더의 굳건한 결의 표명이 없는데 구성원들이 리더를 제대로 따라줄 리 없다. 그래서 리더 스스로의 결의 표명과 자신감 표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위기극복의 출발점은 마음 전쟁에서 승기를 잡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구성원들의 마음을 잡아야 하고, 리더 자신부터 강한 자신감을 표출해야 한다.

리더여, 구성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활력과 동기를 부여하라. 폭풍이 거세더라도 이를 누르고 배가 항해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리더가 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리더여, 결단을 촉구하고 모든 관계자가 희망을 갖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라.

용기 있는 한 사람은 소수가 아닌 다수

을 달라고자 하는 바람보다 강해야 하는 것이다.

생명이 끝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용기는 전염된다”라고 역설한다. 용감한 사람이 자세를 취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동자세를 취하게 된다. 용기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지만 리더가 보여주는 진정한 용기는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다. 그래서 용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리더를 따르기 원하도록 한다. 리더십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도록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다.

두려움은 티더를 제한한다. 로마의 역사가 타
시터스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안정을 바라는 마
음은 모든 위대하고 고상한 제국에 반하는 것이
다.” 하지만 용기는 반대급부의 효과를 갖고 있
다. 용기는 기회의 문, 해결의 문을 연다. 그것은
바로 용기가 갖는 가장 놀라운 혜택 중 하나인 것
이다. 티더여, 당신의 생명이 끝날 것을 두려워하
지 말고, 결코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두려
워하라.

용기는 우리에게 좋은 출발을 줄 뿐 아니라, 좋은 미래로 가져다준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위험을 감수하려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나 갖지 못하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두려움을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기회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사소한 일로 염려하며 산다는 것이다. 리더여, 용기를 갖고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려라.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라.

새로움을 창조해가는 리더가 되라

엘리노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 미국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부인)는 두려움

용기란 원칙으로 다루는 것...기회의 문, 해결의 문 열어
 믿음으로 위험한 상황 극복...축복으로 바뀌 새로운 창조

리더십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다.

용기란 두려워하는 것을 하는 것

리더로서 만나게 되는 모든 시험은 자기 안에서
서부터 시작된다. 심리요법 치료전문가인 셸턴
코프는 “모든 중요한 전투는 자기 안에서 벌어진
다”고 하였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을 담대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용기는 친숙한 두려움을 떨쳐버
리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파위를 갖고
있다.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Jr.목사는 이런 말을 하였다. “한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는 형편이 좋고 안락할 때 그가 어느 편에 서느냐가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차를 보일 때 어느 편에 서느냐에 좌우된다.” 위대한 리더들은 사람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모두 일가견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타협할 수 있도록 하고, 함께 동장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하지만 그들도 필요한 때에 자신의 입장을 취한다.

용기란 지각이나 직관이 아닌 원칙으로 다루는 것이다. 만일 언제 일어나 행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하려는 확신이 마음 가운데 없다면 절대로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수 없다. 잠재력을 믿고 뛰어드는 용기가 언제나 다른 사람들

sondongwon@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톤한인교회)

기도를 쉬지 않은 선지자 사무엘

인간이란 도무지 만족을 모릅니다. 아무리 삶의 외부 조건이 최상일지라도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자신의 어긋난 소위만을 주시해 비극의 주인공으로 여깁니다.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한나이나 아이가 없어 애간
장이 끊어지게 기도하던 한나입니다. 응답받으니 약속대
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어 놓습니다. 어
머니의 생명건 기도로 태어나고 사는지라 사무엘 선지자
는 기도의 필요성과 능력을 뼈 속까지 끌어안고 산 기도
의 사람입니다.

엘리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비참한 최후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저의 이름을 불러 주신 그 날 이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전쟁으로 빼앗긴 연약한 게가 불레셋 손에 들어갔다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서도 20년이나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모토록 할 정도로 돌아오지 못하고 아비나답 집에 머물립니다. 사무엘은 함께 주님과 애끓는 주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마음을 품으며 미스바로 백성들을 불러 모아 회개를 촉구하는 대각성 집회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나 뜨거운 초심을 지키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대 선지자 사무엘의 다스림 가운데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안연해지니 자연 사무엘 집안의 세력이 커진 것은 당연합니다. 물론 아버지로부터 사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는 잘 보아 알겠으나 세도가의 집안이 되다 보니 아들들의 마음이 아버지와 같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나이 들어 사사의 일을 아들들에게 맡기니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오면 당장 불평입니다. 저들이 조용이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사로서 자질이 부족한 아들들을 어떻게겠습니까? 그런 아들들을 몰고 늘어져 이웃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배반감 느끼지 말고 들어주라는 하나님의 권고에 순복하는 사무엘입니다.

사실 아버지만한 아들이 흔치 않은 것은 사실이나 자기
가 아이들을 진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 내지 못해 열
마나 하나님께 죄스럽고 맘이 아팠겠지요. 결국 헛된 욕심
도 배반감도 다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 온전히
충성하는 노종의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그가 경고한 대
로 사울은 권력의 맛을 보고 권력 중독이 됩니다.

사울이 권력 집착에 시기로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미친 꼴을 지켜보는 사무엘의 심정을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다윗이 애처로워서 고난을 거쳐 든든한 믿음의 성군되라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선언대로 평생 몸바쳐 섬겨온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애물단지인 이스라엘을 품고 노종이 뒤에서 올려 드린 중보기도에 힘입어 다윗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었으리요 우뚝 서게 되었다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노종 사무엘을 기려봅니다.

사무엘의 쉬지 않는 무시의 기도를 아이들을 위해, 이
시대의 주님의 백성들 위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부르클렌제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45 금요기도: 오후 8:45 새벽기도: 오전 5:40 성경공부: 토 오전 10:00 Tel: (718)255-2584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33 WWW, FKCB.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철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말-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f@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338),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37-1470 45-50 162 St, #271,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문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토) Tel: (718)461-7835, C: (718)393-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itoch.com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 화요일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말-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 Bayside NY 11364 http://nydcchurch.com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Fax: (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찬양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 찬양 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실 주일날예배: 오전 10:45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주일중간예배: 오후 1:00 주일스페인어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에사랴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014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q.com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965-0009 Fax: (323)9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
--

토요칼럼

내 인생이 짧아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호주를 여행하던 유럽의 한 농부가 겨울이 없어 일 년 내내 꽃이 피는 것을 보며 무릎을 치고는 유럽에 가서 꿀벌을 옮겨 왔다. 계절에 관계없이 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한 것이다. 그 농부의 바람대로 첫해에는 엄청난 꿀을 수확했다. 문제는 다음해부터였다. 언제든 밖에 나가면 꽃이 있고 거기서 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 꿀벌들이 꿀을 모으지 않은 것이다. 추운 겨울동안 살아남기 위해 월동해야한다는 절박함이 사라지자 벌들은 더 이상 꿀 흘려 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었으니 그 농부의 벌꿀 농사는 고작 일 년뿐이었다.

사람의 삶도 그렇다. 절박함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린다. 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을 보라. 그들 중에서 절박감을 찾아

볼 수 있는가. 그저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을망정 일은 하지 않는다. 이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와는 거리가 멀다. 기독교 신자들의 기도에는 땀을 흘려 일하는 것도 일용할 양식에 속하기 때문이다.

게으름은 왜 나타날까? 천성적으로 나태한 사람도 있다. 움직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성격이다. 얼마나 게으름까? 태생적으로 게으른 사람과 결혼한 여자가 진정에 가면서 남편의 목에 인절미를 만들어 걸어줬다. 배가 고프면 하나씩 떼어먹으라면서. 며칠 후 돌아와 보니 남편은 굶어 죽었고 떡은 바짝 말라 있더라는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게으름의 원인은 절박함이 없는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이 박힌 강도 중 하나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절박감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위탁했다. 그러나 또 한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었다. 같은 상황에서 절박감을 느끼는 정도는 이렇게 다르다. 상황과 환경만으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그래서 경계해야만 한다.

사흘을 굶어 도둑질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말처럼 사람은 본능의 필질에 대해서는 절박감을 느끼게 된다. 물론 여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인격, 살아온 환경, 추구하는 목적 등에 따라 그 편차는 클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식욕을 느끼는 것은 인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먹지 않으면 누구든 다 배가 고

프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 또는 참아내는 정도에 서만 차이가 날뿐이다.

절박감이라는 것은 작은 차이나 인내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5일을 견뎌다, 10일을 견뎌다는 것은 절박감이 아니라는 말이다.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절박감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있으면 사람은 움직이게 된다. 아니 움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그들에게 부여하신 것은 일하라는 것이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것은 일하라는 것이다. 복은 그 일을 통해서 얻게 된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삶에 절박감이 없으면 곧잘 나태해진다. 꿀벌들처럼 일하는 것을 쉬거나 게으르게 된다. 그래서일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정도도 살고 있는 곳에 따라 차이가 난다. 도시에서는 하나님이 극소화된다고 한다. 도시에서는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필요가 없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할 절박감이 없다는 말이다. 반대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극대화된다고 한다. 광야는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 그러니 사사건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다.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에 이르자 끊겼다.

일은 사람마다에게 주신 사명이 다. 그 사명에 절박감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사명자의 태도는 달라진다. 불철주야 힘을 다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호주로 옮겨온 꿀벌처럼 빈둥거리기도 한다. 주인에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해서 그만큼씩을 더 벌어들인 앞에 내놓았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게으른 자는 그것을 땅 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 앞에 원래의 한 달란트만을 내놓았다. 주인은 열심히 일을 한 자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며 칭찬을 했지만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게으른 자에게는 악한 자라며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절박감을 느끼는가? 돈인가? 명예인가? 권력인가? 혹은 사랑인가? 무엇이

되었든 절박감을 느끼는 것은 좋다. 정욕으로 쓰러는 잘못된 절박감만 아니라면 말이다. 성경에서 정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정의한다. 이것들은 다 세속적인 것들이다.

지금 절박감이 느껴진다면 누운 자리에서 앉고 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것이다. TV에 눈을 고정하고 드라마, 오락프로에 집착하던 그 빈둥거림을 멈출 것이다. 그리고 땀 흘려 일하게 될 것이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잠6:6-11). 이 말씀을 보고 절박감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다. 또한 이것을 놓치는 것은 게으름이기도 하다.

hanmac@cmi153.org

종교개혁 500주년...이민자 신앙고백 담아
종교개혁주일 공동기도문, 교독문 만든다

세기연-교계지도자들 함께 ‘예문초안작성위원회’ 구성

세계한인기독교연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이하 세기연)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1년 앞두고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의 신앙고백과 개혁의지를 담은 종교개혁주일 예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세기연은 우선 미주지역 교단 지도자들과 협력해 이 같은 예문을 작성한 후 미국 뿐만 아니라 회원사가 있는 독일, 호주, 브라질 등 해외 한인 교회들도 종교개혁주일이면 동일한 예문을 사용함으로써 민족 신앙 공동체 의식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기연은 지난 4일 교계지도자들과 모임을 갖고 ‘WKCM(World Korean Christian Media/세기연) 종교개혁 500주년 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위원장에 장영춘 세기연 회장을 위촉하는 한편, ‘예문(기도문/교독문) 초안 작성위원회’를 구성했다.

초안작성위원장엔 홍영환 목사(중앙루터교회), 부위원장엔 이정근



세계한인기독교연론협회 회원사와 교계지도자들이 모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에 사용할 기도문과 교독문제정에 관해 논의 하고 있다.

목사(유니온교회 원로), 총무에 이상명 박사(미주장신대 총장)를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이창민 목사(LA연합감리교회), 조진보 목사(필라델피아한인연합교회) 등을 선임했다.

초안작성위원들은 각각 초안을 작성하고 회담을 통해 수정 가감한 후 신학자들과의 검증작업을 끝낸

뒤 금년 9월 말까지는 기도문 1-2개, 교독문 1-3개를 최종샘플로 완성하여 세기연 모든 매체(인터넷, 종이신문)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금년 종교개혁주일(10월 30일)부터 이 예문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난 4일 오전 1시 LA한인타운 로텍스 호텔에서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유클리 발행인)의 사회로 열린 첫 모임에서 홍영환 목사는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아주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이상명 총장도 “세기연에서 좋은 일을 시작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근 목사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우리들의 개혁의지가 천명돼야 한다. 예문 개발을 환영하면서 동시에 기념 포럼 등을 개최하는 일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의 토론을 바탕으로 WKCM 종교개혁 500주년 위원회는 500주년이 되는 2017년 중에 ‘교회개혁선언문’과 교회개혁을 주제로 한 포럼 등을 열기로 했다.

〈이성자 기자〉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가 주최 코랄세미나에서 윤학원 교수가 리딩세션을 강의하고 있다

남가주한인음악가협 주최 코랄 세미나
강사에 윤학원 교수, 도널드 뉴엔 교수

남가주한인음악가협회(회장 오성에 권사)는 코랄 세미나를 6일(토) 오후 5시20분부터 8시30분까지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합창을 국민예술로 정착시키고 한국 합창의 위상을 널리 알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윤학원 중앙대 음대 명예교수와 수정교회 카테드랄 콰이어와 LA엔젤레스 콜라 음악 감독을 역임한 UCLA음대 도널드 뉴엔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강의는 합창 테크닉, 지휘법, 리딩세션을 가졌다.

이날 윤학원 교수는 “찬양대는 지휘자의 희생으로 가르쳐야 한다”며 “찬양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단원들과 가까이 지내며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공부한 것을 대원들이 자기 것으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원들간 친목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휘자는 찬양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기본이며, 1년에 한 번은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베데스다대학교 가을학기 입학설명회가 열린가운데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베데스다대학교 가을학기 입학설명회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정인욱 박사) 입학설명회가 6일 정오부터 오후3시까지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입학처와 신학과, 음악과, 경영학과, 스포츠매니지먼트과, 유아교육

과, IT과, ESL 등 전공별 교수들이 학교를 방문한 학생들과 면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박준호 기자〉

‘주안에서 동과서의 만남’ 주제
2016 하와이 영성집회 성료

2016’ 하와이 영성집회가 8월 1일부터 4일까지 하와이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김호용목사)에서 ‘West and East United in Love’(“주안에서 동과서의 만남”) 주제로 진행됐다.

한국과 미국 각처에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리처드 포스터의 첫강의로 막을 올린 영성집회는 조봉희 목사, 박은조 목사의 낮 강의와 세계적인 영성가로 꼽히는 리처드 포스터 목사의 저녁집회로 이어졌으며 3일 동안 로닝커닝햄, 필립안시, 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 박은조(은혜샘물교회), 강준민(LA새생명비전교회), 진유철(나성순복음교회), 조영진(본 교회), 조봉희(서울지구촌교회), 이재훈(온누리교회), 홍기영(분당 창조교회), 강찬기(흐르는생수의강) 목사 등이 단에 올랐다.

둘째 날 저녁 이동원 목사(필그림하우스 원장)는 “개신교 영성을 대



2016 하와이 영성집회에서 강의하고 있는 진유철목사

표하는 기독교 문학은 존 번연의 ‘천로역정’이라고 말하며 구원의 영

기독교대학 위기...SB1146 법안
태평양법률협회, 한영으로 총체적 정보 공개

태평양법률협회(회장 브래드 대쿠스 박사)가 크리스천 대학들이 위기에 봉착한 캘리포니아 주 법안 SB1146에 대한 총체적 내용을 한국어와 영어로 웹사이트(www.pacificjustic.org 또는 www.pji.org)에 올렸다고 밝혔다.

SB1146 법안통과를 막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동 협회는 앞으로 2-3주 안에 지역 주 상, 하의원들에게 전화해서 “No On SB1146”라고 목소리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의원들에게 이메일로도 할 수 있는데, 주의원들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다.

태평양법률협회는 이 법안 반대운동이 매우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 대학을 비롯해서 신학교, 심지어는 교회까지 기독교인들의 가치관과 믿음을 파괴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태평양법률협회〉



이화여자대학교 동문 연주회가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화여자대학교 동문 연주회 성황

이화여자대학교 동문 연주회가 7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담

임 황기호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영성칼럼

〈8면에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 저부터 주님의 마음에서 떠나가 세상의 생각과 합세할까 자신 없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눈물로 회개하며 주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길 위하여 가슴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한시라도 내 입술에서 놓지 않고, 그 말씀으로 인해 만난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전달해 삶을 바꿀놓는 생명의 역사가 평생 계속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세대를 향해 말씀의 사명자들이 세워지길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살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르쳐 풀어 놓도록 세워줄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heenlee55@hanmail.net

동부교계 기사판

east

2016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협의회가 주최하는 2016 한인연합감리교회 선교대회가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미시건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된다. “선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주제로 그동안 사역 해온 한인교회 선교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한인교회가 지향해야 할 선교사역의 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각 선교지역 선교회 활동을 활성화하고 선교현장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의 만남의 장도 마련된다. 이 대회에는 교단 세계선교부 및 지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대거 초청된다.

▲문의: (813)777-6441

뉴욕전도대학교 가을학기 학생모집

뉴욕전도대학교(학장 허윤준 목사)가 오는 9월 20일(화) 개강을 앞두고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강의는 12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의 현장 전도훈련에 나선다. 등록금은 1인당 100달러(부부 150달러). 개강예배는 오전 10시30분 새생명장로교회(담임 허윤준 목사)에서 드린다.

▲문의: (718)637-147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추계부흥사경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담임 정기태 목사) 추계부흥사경회가 9월 23일(금)부터 25일(주)까지 3일간 김은수 목사(글로벌리폼드신학대학원(Global Reformed Seminary) 원장, 국제교회재활성화선교회 대표)를 강사로 열린다. 주제는 “회복과 재 헌신”으로 금, 토요일 저녁 8시, 토요일 새벽 6시, 주일은 오전 11시에 말씀을 전한다.

▲문의: (917)733-7387

뉴욕실버선교학교 제 23기 모임

뉴욕실버선교학교(회장 김재열 목사, 이사장 한재홍 목사) 제 23기 모임이 8월 23일(화) 오후 8시 뉴욕신평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열린다. 7시부터 저녁식사가 있다. 실버선교학교는 10월 25일까지 매주 화요일 10주만에 걸쳐 진행된다. 등록비는 100달러.

▲문의: (917)963-9356, (917)559-2645

비전랜드 건축모금 골프대회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주최하는 비전랜드 건축모금 골프대회가 8월 20일(토) 오후 12시30분 스톤브리지 골프코스에서 열린다. 샷건방식으로 회비는 교인은 일인당 120달러, 외부인은 100달러. 우수자들에게 상품이 준비되며 점심과 저녁식사가 제공된다.

▲문의: (646)220-8222이형근 대화장, (718)207-0302최영식 준비위원장



퀸즈 YWCA 워크샵이 진행되고 있다.

퀸즈 YWCA “Know Your Rights!” 워크샵

지난 5일, 퀸즈 YWCA 강당에서 "Know Your Rights!"(나의 기본 권리!)라는 주제의 워크샵이 약 130명의 성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날 뉴욕시장 오피스 이민국 담당직원들이 함께 조인해 IDNYC가

드 설명과 뉴욕 이민자들을 위한 저가 의료 서비스인 Action Health에 대한 정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기사제공: 퀸즈 YWCA)



패밀리리터치 리더십 캠프를 마치고 참가 학생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총회 준비...선관위 조직 확정

최창섭 위원장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강조

뉴욕교협(회장 이종명 목사)이 오는 10월 정기총회에서 치르게 될 임원선거에 대비해 선관위원회를 소집했다.

지난 9일 오전 10시 교협사무실에서 1차 모임을 가진 선관위는 선관위 업무제책 제 2장 3조 조직에 의거해 구성됐다. 선관위원장 최창섭 목사와 법규위원장 황경일 목사, 교협증경회장 황동익 목사, 김중훈 목사, 교협총무 박진하 목사, 서기 한준희 목사, 이사회 유일용 장로, 특별분과 이상열 목사, 일반분과 임재홍 목사, 평신도대표 이광모 장로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1차 선관위 모임에서 최창섭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운영에 관한 제반 실행사항은 다음 모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교협 헌법 제 8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업무 제책을 갖고 본 회의 임원선거와 각종 선거를 계획하고 광고하며 입후보 및 투표 등을 관리 운영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선거 및 자격은 제 11장 제 24조(선거)에 본 회의 모든 선거는 무기명 투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8항에 걸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욕교협 선관위원회 1차 모임이 지난 9일 교협사무실에서 열렸다.

△1항 회장, 부회장은 총회 재석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하되 3차 투표는 최다점자로 한다(단, 현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

△2항 회장 후보는 현 부회장만이 출마할 수 있다. 정·부회장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 제칙에 준하여 차기회장으로 단독후보가 되었을 경우는 1회 투표로 총회 재석 회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단 과반수가 넘지 않을 때는 증경회장단의 복수 공천으로 추천하여 회장 후보를 등록케 한다).

△3항 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현 회장이 임시회장을 맡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4항 부회장이 선출되지 못했을 경우는 회장 취임식 이후 3개월 이내에 임시총회에서 재 선출한다.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임직식을 마치고 노회원들과 기념촬영 했다. 가운데가 김성민 목사부부.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교회로”

토론토 가든교회 김성민 담임목사 위임예배

캐나다 토론토 가든교회 김성민 담임목사 위임식이 지난 31일 동교회에서 열렸다. 가든교회는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을 역임한 정관일 목사가 은퇴한 교회로 김성민 목사는 지난 5월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김 목사는 위임사를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는 교회로 세워나 갈 것”을 다짐했다.

KAPC 캐나다노회의 주관으로 열린 위임예배는 사회 박원철 목사(노회 서기), 설교 최기정 목사(노회장)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노회장의 인도로 위임예배가 진행됐다.

위임예배는 위임목사와 교인들의 서약, 담임목사가 됐음을 공포하고 기도, 위임패 증정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서 장영일 목사(사랑의교회 원로)가 권면했으며, 서인구 목사(동부시찰장)와 김성근 목사(서울목동제일교회)가 축사했다. 이어 가든교회 교역자와 시무장으로 일동의 축가가 진행됐다.

김성민 목사는 1년이 넘게 담임목사의 공식으로 인해 어려웠던 가든교회에 부임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비전을 제시해 교회를 안정시키고 감사와 은혜가운데 위임예배를 드리게 됐다.

김성민 목사는 뉴욕 라크랜드장로교회에서 10년간 담임목회를 하다 토론토 가든교회 청빙을 받았다.

(정라: 유원정 기자)

“인생 성공 비결을 배운다!”

패밀리리터치 제13회 리더십 캠프 “성공하는 청소년..”

가정사역기관 패밀리 터치가 주관하는 제13회 “성공하는 청소년들의 7가지 습관”을 배우는 리더십 캠프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리반젤 리트리트 센터에서 열렸다.

이 리더십 캠프에서는 8학년부터

12학년 고등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목회자, 소설위커, 변호사, 그리고 호텔/스포츠 매니지먼트 등의 강사진들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7가지 습관들을 익히도록 개인의 경험을 바탕

별도 시행계획을 정하여 검증된 후보를 총회에 상정하도록 한다.

또 제 25조 회장, 부회장 및 감사 임후보자의 자격은 11항에 걸쳐 다음과 같다.

△1항 목사 회장 및 부회장은 본회 가입 5년 이상 된 자로 하되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2항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로 한다. △3항 뉴욕에서 담임 목회 만 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4항 본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로 한다. △5항 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6항 회장 및 부회장 출마는 각각 3년 이내로 제한한다. △7항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 이내에 입후보 할 수 없다. △8항 감사 임후보자의 자격은 제1항, 제4항, 제5항에 준한다. △9항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대로 한다. △10항 임후보자는 영주권 이상 소지자로 한다. △11항 임후보자는 본회를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

선관위는 이상의 모범을 기본으로 한 선거 제칙을 결정해 발표하게 된다.

(유원정 기자)

△7항 감사 3인 중 목사 2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로 다득점 순으로 선출하고 평신도 1인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파송한다.

△8항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범조항에 따라 시행하며



해외기독교문학협 신인등단자들과 김길홍 회장(오른쪽 세 번째)이 기념촬영 했다.

시 4명, 수필 3명 총 7명 등단

해외기독교문학협 신인등단 및 제6집 출판 예배

해외기독교문학협회(회장 김길홍 목사)가 지난 8일 저녁 5시 신인등단 및 제 6집 출간기념 감사예배를 드렸다.

등단한 시인은 다음과 같다.

△시: 최광진, 황동익, 이조연, 장현숙 △수필: 이성철 손영구 한재홍.

회장 김길홍 목사는 “문학은 자연과 사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글로 나타내는 예술”이라며 “그 정점에 해외기독교문학이 있게 된 것은 보람있는 일이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하고 “이런 기쁨은 삶속에서 하나님에 찬조하신 피조물과 호흡을 같이 하며 새 이정표와 정체성을 찾아 삶의 중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작품을 쓰고 신인등단을 하신 분들에게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뉴욕대한교회(담임 김진 목사)에서 열린 예배는 황동익 목사 인도로 기도 이종명 교협회장, 설교 김해중 목사, 헌금기도 및 축도 김정국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해중 목사는 “하늘/바람/별/시/하나님”(요1:14-18)이라는 제목으로 “예수그리스도가 말씀

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은 문과 가운데 오셨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 말씀이 기독교인이었던 윤동주의 시로 전달됐다”고 말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으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마운 일인가”라고 말했다.

2부는 이조연 시인 사회로 김철호 선생의 트럼펫 연주, 조의호 목사의 축시, 등단평론 광상희 시인, 시낭송 최광진 장현숙 시인, 상패 증정(등단자 7인) 김길홍 회장, 축가 서병선 성악가, ‘바람의 얼굴’ 평론 이계선 목사, 유상열 목사의 색소폰 연주로 마쳤다.

한편 이날 말씀에 앞서 뉴욕을 방문 중인 러시아전사합창단(대표 김바울 선교사)이 예배에 없이 한국어 찬양을 불러 많은 박수를 받았다.

해외기독교문학협회는 매월 첫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뉴비전교회(담임 황동익 목사)에서 모임을 갖고 있으며 올 가을 쿠바여행, 9월 뉴욕청소년할렐루야대회 집회에서 청소년 백일장으로 계획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으로 한 강의와 다양한 액티비티를 제공했다.

지난해에 두 번째로 참가하는 학생 다니엘 진(11th grade, Rutherford High school), 한나킴(11th grade, Creskill High school)은 대표로 소감문을 발표하고 그룹 리더로 봉사하기도 했다.

특별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11학년과 12학년 학생들이 주를 이뤄 리더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참

가학생들은 대학진학 이후에도 자기관리와 목표설정예 필수적인 요소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한다며, 웹사이트familytouchusa.org를 방문하거나 전화(201-242-4422)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패밀리리터치)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국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새벽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경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아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IM매: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원예배: 오후 1:30 종교개혁예배: 오전 10:45 (월, 화) 오전 11:45 (목, 금) 유년노예배: 오전 10:00 Tel: (508)425-4579, Fax: (508)425-5467 2 Main St, Hingham, MA 01948		살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8:00 영아, 유년, 유년예배: 오전 10:45 중, 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 (704)877-6642, Fax: (704)529-0900 701 Scaleyban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에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아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9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cseattle.org		안다독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Ave, Las Vegas, NV 89139 www.omychurch.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관수 주일영아예배: 오전 11:30 주일영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역: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아)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915)755-1490, 사역: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은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전 7:00 금요찬양예배: 오전 8:00 토요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사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에슈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www.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주일 2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요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hurch.org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남가주교협 8.15기념예배 개최

14일 세계아가페선교교회에서

남가주한인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강신권 목사)는 8.15 광복 71주년 기념 연합예배를 14일(주일) 오후 4시30분 세계아가페선교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에서 개최한다. 이번행사는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1.5세, 2세대에게 광복의 의미를 알리고 △조국의 통일을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에서 주최한 교회음악세미나에서 박신화 이대교수가 리딩세션 강의하고 있다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 주최 교회음악 세미나

강사 박신화, 임한귀, 리사 에드워즈, 김경민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김원재) 주최 교회음악 세미나가 6일 오후 4시4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로 박신화 교수(이화여대교수/안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임한귀 교수(한국합창지휘자 협회 이사/광주시립합창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 리사 에드워즈 교수(산마리노크루니티교회 오르가니스트), 김경민 교수(베테스다대학교)가 강의했다. 이정호 목사(은혜한인교회) 기도

로 시작된 세미나는 박신화 교수가 지휘자 세미나와 성가대 발성법 그리고 리딩세션에 강의했으며, 임한귀 교수가 찬양대 세미나와 오케스트라 지휘법, 리사 에드워즈 교수가 반주자 세미나, 그리고 김경민 교수가 CCM 반주법에 대해 강의했다.

김원재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미주한인교회의 찬양사역이 더욱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한국의 열이란 주제로 열린 2016 라크마 정기연주회의 윤학원코랄과 라크마의 클라보레이션 무대

‘한국의 열’ ... ‘만남과 소통’

2016 라크마 정기연주회, 윤학원코랄 협연

2016 라크마 정기연주회가 ‘한국의 열’이란 주제로 5일 오후 8시 월트디즈니콘서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만남과 소통’이라는 부제로 열린 연주회는 윤학원 코랄(지휘 윤학원 교수)과 라크마(지휘 윤임상 교수)가 출연해 광복 71주년을 기념하기에 손색이 없는 공연을 선보였다.

윤학원 코랄은 작곡가 우효원 작곡, 2005년 인천시립합창단에 의해 초연된 ‘매나리’와 2008년 동정녀의 몸에서 주님이 나심을 찬양한 ‘오! 위대한 신비여’를 불렀으며, 라

크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 바로왕, 애굽에 나타난 10가지 재앙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룬 ‘Exodus’를 불렀다.

또한 윤임상 교수 지휘에 맞춰 두 합창단이 함께 다문화프로젝트 ‘LA is the World’의 하나로 기획된 ‘Succession’을 불렀다. 이번 음악회의 곡들은 마이너 풍으로 다소 난해함이 있었지만 한국적인 정서가 가득 담긴 공연이었으며, 합창단 내 타인종 단원들이 곡 중 솔로와 듀엣공연을 펼쳐 동서양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무대였다. (박준호 기자)

위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며 △실수된 교계, 교협의 위상을 회복하고 △타 커뮤니티에 대한민국의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등의 목적으로 열리게 된다.

예배설교는 정해진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남가주명성교회 담임)이 맡는다. 이날 기념예배시간엔 합심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미



HYM화요기도모임에서 강사로 나선 신섭창교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7전8기의 은혜’ 간증

HYM 화요기도모임, 강사에 신섭 창로

HYM(대표 더글러스김 선교사) 화요기도모임이 매주 화요일 8시 은혜한인교회 월드프레이어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8월 4일 모임에는 신섭 창로(한국 보정교회)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HYM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기도모임에서 신섭 창로는 ‘7전8기의 은혜’(시 119:67-71, 잠 24:16)라는 제목으로 그의 간증이

국어 좀더 건강한 국가로 전세계에 영향력을 주도록 △한인교포사회와 1세, 1.5세 그리고 2세를 위하여 등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된다.

또한 한국에서 제작된 손태극기를 이날 참석한 모든 이에게 나누어 주며 1945년생으로 해방둥이인 강부웅 목사가 만세삼창을 인도하게 된다.

한편 주최 측은 작은 교회 80곳을 대상으로 총 1,600포의 사랑의 쌀도 배부할 계획이다.

▲문의: (323)735-3000, (213)263-1364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2016년 미서부 미전도종족 전도대회

2016년 미서부 미전도종족 전도대회가 8월 18일(목)부터 20일(토)까지 마라나타비전교회(1239 N. Livermore Ave. Livermore)에서 열린다. ‘어떻게 지역교회가 “영원히 남을 선교의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영광스런 선교”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도대회의 강사는 마이크 콘스트란츠 목사, 신현필 목사, 손원배 목사, 안강희 선교사, 김궁현 목사, 장춘원 목사, 고상환 목사다.

▲문의: (978)766-8480강대이 목사

주님세운교회 입당 7주년 기념 음악예배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는 입당 7주년 기념 음악예배를 19일(금) 오후 7시30분에 갖는다.

▲문의: (310)325-4020

지역 섬김을 위한 새누리 태권도 선교축제

새누리침례교회(담임 손경일 목사)는 지역 섬김을 위한 새누리 태권도 선교축제를 13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2시까지 본 교회 주차장에서 갖는다. 이번 선교축제는 World Renowned M-Team Teakwondo Demo, Team, 새누리 어린이 태권도팀의 특별공연이 열린다. ▲문의: (650)210-0000

나성금란교회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

나성금란교회(담임 정성용 목사 3153 W. Marine Ave, Gardena)가 노인들을 위한 사역 시니어즈 블레싱 라이프 스쿨(이하 SBLS)이 오는 9월 7일부터 12월 8일까지 매주 수,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열린다. 대상은 60세 이상 시니어로 50명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등록비는 300달러. 강사로는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 박기호 교수(폴리신학교) 등 다수의 한인교계 목회자들이 나서게 된다. ▲문의: (310)987-8111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 발런티어 모집

더텐트(대표 다니엘 방 목사 639 S. New Hampshire Ave, LA, CA)는 27일(토)에 열리는 파킹랏 콘서트에 함께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주차관리, 무대정리 등이다. ▲문의: (213)999-4909

충현선교교회 설립31주년 기념 부흥성회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중기 목사)는 교회설립 31주년 기념 부흥성회를 12일(금)부터 14일(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김남수 목사(뉴욕 프라미스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12일(금) 저녁 7시30분, 13일(토) 새벽 5시20분, 저녁 7시, 14일(주) 1-3부 예배이다. ▲문의: (818)549-9191

성경통독세미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통독 세미나가 13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비전교회(담임 김대준 목사 520 S. La Fayette Park Pl, LA)와 20일(토) ANC온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 10000 Foothill Bl)에서 열린다. 강사는 ANC온누리교회 김권수 부목사. ▲문의: (818)383-7926

담임목사 청빙

초교과 교회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호놀룰루한인기독교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자격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10년 이상 목회경험이 있고 한영 이중언어가 가능하며 보수적 신앙관을 가지고 미국내 취업이 가능해야 한다. 서류는 이력서, 사역비전서, 신앙 간증 및 고백서, 졸업증명서, 목사안수증명서, 최근 설교 동영상(이중언어 선호) 2편, 추천서 2명(직접 우송)이 필요하다. 마감은 10월 1일까지. 이메일(hi.kcc.ptc@gmail.com)이나 우편(Attn: Pastor Search Committee Korean Christian Church/1832 Liliha St. Honolulu, HI 96817 USA)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hi.kcc.ptc@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1부예배: 오전 7:45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주일6부예배: 오후 2:30(청년) 새벽기도회: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Bre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c.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드림)예배: 오후 12:30 영양예배: 오전 10: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0: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영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cpc.org	등문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주일회교: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smgpc.org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여져 있는 우리의 통일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수요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8 L.A., CA 90033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1부: 오전 8:30 주일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4부):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www.mjcl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금요일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5:45(월-토) 오전 6:00(토)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양예배: 오후 1:00 대학영양예배: 오후 1:00 대학영양예배: 오후 1:00 Tel. (949)854-4010 / E-mail: bethe@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7: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역(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저녁 7:30 금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927 S. Bonnie Brae St., L.A., CA 90006	엘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수요성령기도회: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아) 주일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성령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계기도선: 365일 24시간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6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영아) 주일4부예배: 오후 2:00(영아)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nchurch.com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	중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3부예배: 오전 11:45 주일영양예배: 오후 1:45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www.socalsamsungchurch.org / e-mail: pastor@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수요일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 pastor@corner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4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영아) 주일영양예배: 오후 3:00(청년)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ancecg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8 195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통합은 환영...이단 문제 선결을”

한교연, 연합기관 통합 관련 긴급회전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은 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 한기총이 먼저 이단 문제를 해결해야 통합을 논의할 수 있다는 ‘선조치 후논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교연의 입장은 주요 7개 교단장의 통합 추진 방안과는 차이가 있지만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통합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교연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교연 회의실에서 ‘한국교회 현안에 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교연 한기총 통합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기본적으로 한교연 한기총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양 기관 통합의 전제는 다락방 등 이단 문제의 해결이며, 이에 대한 한기총 대표회장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한교연 한기총 통합 논의의 주체는 한교연과 한기총이며 외부단체는 협력 대상”이라고 했다. 지난달 26일 통합 추진 방안을 내놓은 주요 7개 교단장들의 모임과 이들이 구성된 한기총과한교연통합협의회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한교연 측은 “7개 교단장 회의와는 양 기관 통합 논의과정에서 언제나 협의하고 대화할 수 있다”며 “이단 문제가 해결되면 통합을 논의할 ‘한교연 한기총 통합추진위원회’를 즉각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한교연은 특히 ‘한기총과 선 통합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선 통합할 경우 현재 양 기관의 회원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현재 예정개혁교단에 가입한 다락방 문제를 처리할 경우 법적일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7정관에 의한 교단단 인

정한다는 주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예정개혁(다락방)을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불씨를 안고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 통합 주장은 한기총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마음이 있다면 기관의 명칭도, 자리

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고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교연은 “그동안 한기총 개혁과 이단 해결을 위해 이영훈 대표회장이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만일 한기총 안에서 다락방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이 대표회장이 한기총

이견 여전한 한기총-한교연, 통합의지 보여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통합 성사 여부는 1차적으로 주요 교단과 양대 기관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단 문제 해결과 양 기관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들 사이에 이견이 전혀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놓고는 크고 작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단문제 해법=주요 7개 교단장은 한기총 7·7 개혁정관의 복원과 교단장회의 소속 24개 교단만 통합 총회의 회원으로 인정하는 방법으로 이단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이 경우 이단이나 이단이 소속된 교단은 배제된다. 한교연의 이단 문제 해결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세부 일정이나 절차는 보완이 필요하지만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한교연은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 제대로 된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신 한교연이 논의과정에서 배제됐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선 이단 문제 해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교연 관계자는 8일 “한기총이 이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통합을 외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기총도 다르지 않다. 주요 7개 교단장이 제안한 안을 지지한다고 하면서도 ‘선 통합, 후 이단 문제 논의’입장을 또다시 내놓고

있다. 박종선 한기총 사무총장은 “나는 뭐가 이단인지 잘 모른다. 다만 홍재철 전 대표회장 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단과 관련해 논의할 게 있다면 한기총 밖에서 하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한기총과 한교연 모두 명분만 앞세우고 있는 한, 통합보다는 기득권과 주도권 다툼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주요 교단장이 통합의 원칙과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

◇통합의지 있는지 의문=한기총과 한교연은 이단 문제 외에도 군소교단 포함여부,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한 입장도 상이하다. 특히 한교연은 24개 교단 중심으로 통합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회원교단이 아닌 대한예수교장로회(예정) 합동,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이 통합문제를

에서 전격 탈퇴해, 한국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길에 결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이 한기총과 통합 의지를 재확인한 만큼, 앞으로는 이단 문제를 해결하면서 통합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종선 한기총 사무총장은 “이단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한교연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해 논의하겠다”면서 “그러나 이 대표회장에게 한기총에서 탈퇴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거론하는 것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교연 관계자는 “7개 교단장은 소속 교회 3000개 이상이거나 교육부 인가 신학교를 보유한 것 등을 기준으로 회원을 받고 제안했다”면서 “이는 건전한 군소교단을 배제 또는 무시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4개 교단 중심의 통합이 한교연이 요구해온 이단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안됐다는 점, 군소교단에 대해서도 통합 후 가입의 문호를 열어줬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교연의 공식 안은 각 교단 총회에서 결의한 뒤 한교연 대표회장이 통합논의를 진행하는 점진적 통합이다. 당장의 통합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기총은 7개 교단장이 제시한 방안을 수용하면서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임직원들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박 사무총장은 “이 대표회장에게 통합논의를 일임하기로 결의했고 7개 교단장의 제안을 수용기로 했다”면서도 “모든 임직원이 사표를 제출하면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라 ‘순교자적 신앙회복’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과 이단·사이비 척결’ ‘차별금지법 제정 및 이슬람 확대에 대한 경계’ ‘한반도의 평화통일’ 등을 위해 기도했다. 한국순교자기념사역회에 후원금을 전달하는 순서도 가졌다.

한교연은 9월 한 달을 특별기도기간으로 정하고, 소속 교단 및 교회와 함께 ‘주여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대하 7:13-14)’를 주제로 기도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동성애-에이즈 관련성 보도 막는 보도준칙 철폐” ...시민단체들 기자회견

참사랑학부모연합과 탈동성애인권포럼 예정통합비상대책위원회 등은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와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 보도를 금지시킨 인권보도준칙 철폐를 촉구했다.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2011년 제정한 인권보도준칙에 따르면 ‘언론은 동성애자를 에이즈 등 특정질환과 연결짓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남성 간 성접촉과 에이즈 감염의 긴밀한 상관성 보도를 금하고 있다.

안철원 참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식 자료에 나와 있듯 남성 간 성접촉은 에이즈 확산의 주요인이며 치명적인 전염병 등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동성애는 권장·옹호해야 할 인권이 아니라 금지하고 만류해야 할 성중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도 인권위는 한국기자협회와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다”면서 “이런 우민화 정책으로 청소년 사이에서 에이즈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박탈한 인권보도준칙을 당장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아프리카에 성경 5000권 선물합니다”

기독교NGO 비엔브레드, 남아공에 한글학교 설립

기독교NGO인 새비엔브레드가 스와질랜드와 모잠비크 등지를 방문해 성경 5000권을 선물하는 전달식을 개최한다. 현지 주민들을 위해 우물을 봉헌하고 한글학교 설립을 기념하는 행사도 연다.

4일 비엔브레드에 따르면 이 단체 관계자들은 오는 7-18일 아프리카를 방문한다. 이들은 1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스텐버그 지역에서 ‘노블팜스 한글학교’ 개교식을 개최한다.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스와질랜드와 모잠비크를 방문해 현지에서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에게 성경을 전달한다. 스와질랜드 선교사에게는 시스와티어 성경 2000권, 모잠비크 선교사에게는 톱가어 성경 3000권을 선물한다.

14일에는 모잠비크 수도인 마푸투의 한 마을을 방문해 우물 봉헌 예배를 드린다. 비엔브레드는 “현지 주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식수 문제여서 우물을 선물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심했을 청소년·청년 신앙 약해지지 않기를”

청년사역연구소 ‘목사 성스캔들’ 관련 페이스북에 위로 글

청년사역연구소(대표 이상갑 목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발생한 ‘목회자 성문제’로 인해 낙심했을 청소년·청년 사역자들을 위로했다. ‘목회자의 성문제 예방법’도 공개해 이들 사역자들이 성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권면했다.

청년사역연구소는 4일 페이스북에 청소년 사역 단체인 라이즈업무브먼트 대표 이동훈 목사의 성 스캔들을 언급하며 “청소년·청년 사역은 참 힘든 지뢰밭과 같다. 위험이 곳곳에 있고 적절한 선을 유지하지 않으면 불나방처럼 불에 타서 죽을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성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거든 차라리 사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처받은 청소년·청년 사역자들을 향한 위로의 말도 아끼지 않았다. 연구소는 “청소년·청년 동역자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이고 여러분

폐하리”고 촉구했다.

김정환 예정통합비대위원장도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적 안전을 위해 동성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용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면서 “그러나도 동성애자만을 위한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대다수 국민들과 어린 청소년들은 동성애에 따른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또 인권위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법 내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된 ‘성적 지향(동성애)’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베드로 G&F 미니스트리 대표는 “동성애 성행위는 변태적인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행위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성행위라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그러나도 국가인권위는 동성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극소수 변태성욕자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며 대다수 국민의 기본인권을 압살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인권위법에서 ‘성적 지향’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엔브레드는 ‘성경(Bible)’의 ‘B’와 ‘빵(Bread)’을 합성한 명칭이다. 그리스천 사업가와 은퇴 장로 10여 명이 주축이 돼 2014년 6월 사단법인 설립 인가를 받았다. 단체는 남아공 대권도대회를 후원하는 등 아프리카에 한국문화를 알리면서 복음도 전파하는 다채로운 문화 사역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창용(71) 비엔브레드 회장은 단체 설립을 주도했고 현재는 비엔브레드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73년 대한성서공회에 입사해 40년간 근무하며 출판국장과 행정 관리본부장, 총무 등을 역임했다. 안 회장은 “2013년 10월 정년은 퇴한 뒤 여생은 봉사에 전념하고 싶어 비엔브레드를 세웠다”며 “하나님께 진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선교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엔브레드의 사역을 참바와도 아프리카 다른 나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아프리카 50여개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의 뜻 모으자”

한교연, 광복71주년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한 특별기도회’

“주여, 대한민국이 죄와 허물을 통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이 7일 서울 금천구 탑골로 주님앞에제일교회(노윤식 목사)에서 개최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한 특별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기도했다. 기도회는 광복 71주년을 맞아 통일을 염원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뜻을 모으자는 취지로 열렸다.

‘신앙 사수와 용서의 실천’을 제목으로 설교한 한교연 전 선교위원장 노윤식 목사는 “스데반 집사는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사수하고, 자신을 핍박한 이들을 용서하며 복음을 전했다”며 “이는 기독교인이 배우고, 갖춰야 할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땅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의 권력자들을 미워하기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일래 대표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교회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세를 취하며 연합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훈 한교연 전 대표회장장과 새누리당 홍문종(국회조찬기도회장) 의원은 각각 격려사와 축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한교연 임원들의 인

에드 캐넌 미국 극동방송 사장, 제리 존슨 미국종교방송협의회(NRB) 회장 등 미국 유명 방송사역자도 참석했다.

한 훈련병은 침례식에 참가한 뒤 “어머니가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나 역시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신앙은 없었다”며 “침례를 받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전했다.

극동방송은 연무대군인교회 건축

역대 최대 진중 침례식, 5000여 장병

극동방송, 연무대군인교회 건축현금 전달

극동방송(이사장 김장환)이 창사 60주년을 맞아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수영장에서 장병 5000여명을 상대로 진중 침례식을 열었다. 국내에서 열린 진중 침례식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침례식은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렸다. 장병들은 차례로 수영장에 임시로 마련된 침례탕에 몸을 담갔다 일어나며 침례를 받았다.

행사에는 김장환 목사 등 한국침례교회 목회자 40여명 외에 미국교회 목회자와 군목 22명도 참여했다.

‘기독교민족지도자 50인 기억하기’

한국고등신학연구원 캠페인

8·15 광복절을 맞아 잊혀진 ‘기독교민족지도자 50인 기억하기’ 캠페인이 펼쳐진다. 한국고등신학연구원(KIATS)은 지난해 발간한 책, ‘한반도에 울려 퍼진 희망의 아리랑’을

교회들이 ‘8월의 필독서’로 선정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읽도록 장려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교회들이 이 책을 한국교회의 다음세대인 고등학생과 대학생, 청년 등에게 선

“신옥주 이단적 교리에 가정 파괴·자녀 고통”

‘신옥주집단피해자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은혜로교회 신옥주씨 때문에 피해를 입은 탈퇴 신도와 가족들이 모임을 열고자 하고 이단 예방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미션라이프 인터넷판이 9일자로 보도했다. 신옥주 집단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한국기독교 역사를 전면 부인한다는 이유로 2014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선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바 있다.

다음은 미션라이프 보도내용. 신옥주집단피해자대책위원회의는 9일 서울 강서구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신옥주 집단이 남대평양 피지로 신도들을 데려가 집단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탈하려는 신도를 ‘타자마당’이라는 이름으로 집단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신씨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군소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은혜로교회를 설립했으며, 교주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신도들을 미혹해 자기 수하에 두고 있다”면서 “신씨의 이단적 교리와 행태로 가정 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집단사위에 어린 아이들까지 참여시키고 있다”면서 “피지에 땅을 임대해 환란 날의 피난처라고 하며 300여명의 신도들을 데리고 가 집단생활을 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집단폭행을 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이모씨는 “부모님과 여동생이 신옥주 집단에 빠졌는데 ‘신씨만이 성경을 통역할 수 있다’며 나까지 끌어들이려 했다”면서 “부모님은 지난해 9월 피지로 갔으며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 있는 여동생과 3명의 조카도 사이비 종교집단에서 활동하고 있어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하루하루가 두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형택 한국기독교이단상담연구소장은 “신옥주 집단에서 시한부종말론 재산한남 가솔 이혼 등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진교회)’와 같은 사이비 종교집

단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동영상 사이트 안에 있는 신씨의 설교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집단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신옥주 집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은혜로교회는 헌금과 이혼을 강요하지 않으며 집단폭행이나 납치 강요를 하지 않는다. 시한부종말론을 주장한 적도 없다”면서 “성경적으로 믿고 행동하기 때문에 피지에 가는 것뿐이다. 연구소가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도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사역 하면서 그곳 재소자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과정과 그 이후 영적으로 성장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보며 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저는 전임 사역자로서 일주일에 10번 정도의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재소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의 손길을 체험하기에 이 예배시간이 가장 기쁩니다. 재소자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을 하면 마치 천국에서 찬양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저희 안에 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하며 주님을 바랄 때 성령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도록 도와주십니다. 많은 재소자들이 이러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을 경험합니다.

이 예배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러지 기도 하지만 간혹 제가 시간이 날 때면 직접 여자 재소자들의 감방을 심방해 그들과 함께 기도모임을 갖곤 합니다. 그 기도모임은 재소자들의 기도제목을 물어보고 그것에 따라 기도해주는 형식으로 오랫동안 인도해왔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재소자들의 문제와 그들 자신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각자가 하나님께 드릴 감사 제목이 무엇인지를 먼저 나누고 그 뒤에 기도제목을 나누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모임이 무르익어 가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때는 기도 중 평안이 아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한번은 여자들의 감방에서 10명 정도의 재소자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악령이 저를 강하게 공격하며 제 몸을 마구 때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곳에 기도하러 참석한 사람 중 누군가가 마귀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에 기도가 끝난 후 그들 중에 누가 마귀에게 심한 공격을 받고 있다고 물었습니다.

한 여자 재소자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전에는 영적인 공격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는데 교도소에 온 후에 갑자기 악령들이 달려들어 공격을 해서 몸으로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자매님은 잘못된 방에 들어가서 그런 일이 생긴 줄로 알고 교도관에게 다른 방으로 옮겨 달라고 했으나 다른 방에서도 역시 마귀의 공격이 그치지 않아 너무나 지쳐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그 분에게 누가복음 4장 18-19절을 주며 그 말씀을 외우며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것을 권하며 예수님께서 그분을 악령의 공격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믿음이 성장하고 그러면 영적으로 강해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마귀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틀 후,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변화된 모습의 새 사람을 그 자매님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짧은 간증을 나눠주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외웠더니 마귀의 공격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녀가 전에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이 일을 통해 만나게 되어 그동안 잃어버렸던 기쁨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녀의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당신이 또 이루어 주셨군요.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교도소 선교에 저를 불러주셔서 이런 변화와 기적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이런 간증들을 제 안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500교회를 방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주님께서는 교도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영적부흥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난 재소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주님을 환영하고 따르던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서 잊혀지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환영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자유가 없이 갇혀 지내며 모든 것을 다 잃고 단 1불도 없는 사람들, 교도소에서 나가도 아무도 반겨줄 사람이 없기에 길거리가 집인 사람들. 현재 감옥에서의 재소자들이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다가가셨던 바로 그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십니다.

저는 이 곳에서 그 사실을 수없이 목격하기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의 복음이 교도소안에 전파되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고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yonghui.mcdonald@gmail.com

선교 펄지

semmjoo교회와 센터는 지난달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기아대책 본부에서 실시한 기대봉사단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향후 사역에 대한 대비는 물론 선교사 개인의 삶에 대한 점검 등을 잘 마치고 7월 11일 사역지에 돌아와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 필리핀은 우기가 시작되어 매일 내리는 비가 우리의 사역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규칙적인 생활리듬을 깨뜨리기에 어려운 점이 많으나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응해야 할 선교사역의 과정이기에 잘 이겨내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얼마 전에 시작한 킨더바이블 스쿨은 잘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유치원과정에 입학할 해야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자격을 갖기에 많은 숫자가 줄었지만 잘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금요일 실시하는 피딩과 토요일 특별수업과 주일날 주일학교는 날로 참여자가 증가하고 매우 만족한 수업이라고 스스로들 좋아하고 참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한 피바간의 교회는 5년 동안 교회가 문을 닫은 채로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희와 동역을 하겠다고 하여서 저희가 따로 교회를 시작하지 않고 함께 사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풀타임으로 사역에만 전념하기를 원하는데 생활비 충당이 안되어 지금은 트라이스쿨 운영을 하면서 쉬는 날 이들과 주일날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사님이 쉬는 날에 사역을 하므로 매일 사역이 이뤄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복음의 열정은 물론 풀타임 사역을 원하는데 생활비 충당이 어렵기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7월 25일-7월 29일까지 서울의 HYMC 교회에서 저희 사역지를 섬기기 위해 15명의 섬김이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함께하였습니다. 이들 멤버 중에는 23개월짜리 어린이가 엄마와 할머니 이모와 함께 참여했고 두 가족은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참여했는데 저와 저희 센터 식구들에게 너무 좋은 모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팀워크 우애는 물론 협력이 잘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어린이의 이름으로 기증한 멜로디온과 키보드를 받았을 때 감동은 벅차기만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들, 해서는 안 될 일들 모두

필리핀

에 관심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돌보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오늘 여기 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선교지 이야기 - 동역하는 교회
지난 25일-29일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저희의 사역지에 와서 동역하였습니다. 15명의 멤버가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교육을 받으러 갔을 때 그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사역을 보고하고 참가자들 오리엔테이션을 같이 하면서 사역지에서 우리들이 할 일을 함께



나누며 무엇을 준비할 것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저도 처음이었는데 너무 필요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팀들도 저와의 만남을 매우 흡족해 하였습니다. 그리고 15명의 팀이 저희 사역지에 와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이 팀을 현장에서 만나면서 받은 감동은 팀 멤버 구성 때문이었습니다. 2살짜리 아이, 엄마와 이모, 할머니로 구성된 한 가족, 아들과 아버지가 짝을 이룬 2가족, 그리고 이웃교회 학생 1명, 본 교회 5명 기구 간사1명 총 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명 중 1명은 정신지체를 가진 고3학생이었습니다. 잠시 어디로 사라지는 이 아이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없었지만 언제나 씩씩한 모습은 우리에게 귀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살짜리 어린 아이의 이름으로 저희 센터에 멜로디온과 키보드를 기증하였는데 이 또한 우리 교인들은 물론 아이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이었습니다. 선교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리고 동역하는 교회들이 있기에 언제나 희망이며 행복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사가 보내는 메시지

당신은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저는 성도라면 주님 한 분 만으로 만족해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해답을 저는 다윗의 신앙과 삶에서 발견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원문은 영어번역본은 아닙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NIV)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KJV) 이 고백은 “주님께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구할 것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는 뭐가 더 많이 얻고자 할 때 생겨납니다. 구하는 것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

님만 구하며 그 주님만 온전히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 안에 내가 찾고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할수록 우리가 할 일은 내 모든 필요를 다 갖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손을 펴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붙잡고 모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새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제목

1. 건강한 선교사역을 위해-선교사, 교회, 성도, 주민들의 건강위해
2. 예배당 및 센터 건축을 위해-설계, 시공자, 후원모금
3. 각 기관 사역의 성장과 열매-KINDER BIBLE SCHOOL, 주일학교(유,초,등부), HIGH SCHOOL, 어머니기도회의 성장과 열매
4. 피바간교회의 성장과 교회 지붕 보수공사를 위해서
5. 신규 사도회 멤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김적용 박영란 선교사
saemjoo@daum.net

2016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1. 대 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2. 방 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 마감일은 2016년 10월 1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
3.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4. 시 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1,000, \$5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예정.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장영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미주복음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크리스찬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로스엔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로스엔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로스엔젤레스, 미국)

추천도서



폴 워셔 저, 생명의말씀사



박영선 · 김관성 저, 두란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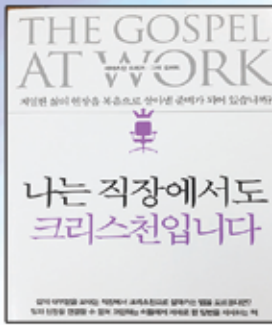
마틴 로이드존스 저, 지평서원



강준민 저, 두란노



켄 가이어 저, 디모데



세션스 토커 · 그렉 길버트, 생명의말씀사

후원 기독교서점협회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선교 편지

Dear, 기도와 사랑, 또는 물질로 하나님께 드려, 선교후원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고 평안하시지요? 힘도 드시구요? 가족이, 사랑하고 건강하기만 하면,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와 사랑, 물질로 선교후원 해주셔서... 그 믿음... 보소서, 주여! 큰 힘이 되며, 감사합니다! 그 속에 든 간절한 기도와 선교기대를 명심하며, 충성된 주의 종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시103:5). 아멘!

가정과 교회에 얼마나 은혜와 간증이 많습니까? 저희도 그간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1. 네덜란드 헤이그, "이준기념교회"의 청소년 양상블 팀이, 헝가리 단기선교를 왔습니다. 해외에서 조국을 사랑하고, 역사를 기억, 기념하는 교회입니다. 참 마음이 숙연해지는 교회이지요?

저희가 한국에서 7월 15일(금) 헝가리로 돌아와, 바로 다라쉬 동네(월)부터 23일(토)까지, 최영목 목사님께서 인솔해 오신 팀과 함께, 영성시간을 가지며, 악기 연주로 곳곳에서 섬겼습니다.

남부역 거리교회, 쾨바너이 교회, 쇼& 빌라고샤그 교회, 양로원, 집시 슬럼가 회쉬 동네와 살라쉬 동네, 근교 센텐드레, 옛수도 에스테르곰, 슬로바키아 국경에서도, 연주로 주님을 송축하였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2. "헝가리복음주의교회, 전국청년수련회"에서 '선교'라는 주제로 선택특강을 했습니다(7/29일).

길거리, 역, 다리 밑, 집시 슬럼가 등 거친 광야에서 섬기다가, 텐트 안으로 자원해서 온 믿음의 청년들을 보며, 이전 대학생 선교회에서 오래 사역했던 그 설레임과 간절함, 벅찬 감동, 감격, 감사가 넘쳤습니다.

말씀과 간증으로, 비전, 미션을 외쳤는데, 성령께서 저로 헝가리 애국가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동역자들, 섬기는 분들의 헌신을 생각하며, 기도해주시십시오!

쇼& 빌라고샤그 교회-'임레& 일디코' 전도사 부부, 어린이 주일학교 '피테르' 전도사,

거리교회 급식 섬김이-'틀라라, 주저, 산도

로, 여니'

토요학교(영어와 성경), 주일학교(활동시간)-'원선생님, 크리스티나, 에스테르, 지니, 로베르트'

한분 한분의 간절한 기도와 사랑, 헌신과 배려, 희생을 기억하며,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24:45)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숙연해지며, 사랑합니다. 주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시103:5).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흥근& 서명희 드림.

mylovehungary@hanmail.net

“한국 청년들 내뿜는 열정에 내가 되레 힘언어” 커크 프랭클린 WGA 총재, ‘선교한국 2016 대회’ 참석

“예수님은 전도자이자 영적 영웅이며,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되는 분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 선교사로,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모욕과 수치를 감수하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커크 프랭클린(57) 위클리프국제연대(WGA) 총재가 지난 1일부터 5박6일간 열린 '선교한국 2016 대회'에 참석한 한국 청년 2500여명에게 당부한 말이다. 대회 주강사로 초청된 프랭클린 총재는 3일간 '그런즉 우리도'(히13:13)를 주제로 전체 집회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가 총재로 있는 WGA는 모국어 성경이 없는 종족에게 성경을 번역해주며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교회·선교단체 연합체다. 현재 119개 단체가 소속돼 있으며 국내 성경번역단체인 GBT성경번역선교회(대표 윤누가 선교사)도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WGA의 원형은 1934년 미국에서 출발한 '위클리프성경번역선교회(WBT)'지만 2차 세계 교회·선교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이들의 동참을 격려하기 위해 2011년 명칭을 바꿨다.

지난 3일 서울 광진구 장로회신학대에서 만난 프랭클린 총재는 “선교한국 대회 집회장을 가득 채운 수많은 청년들이 내뿜는 열정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선교를 배우려는 젊은이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설교하는 자신이 오히려 격려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청년을 모으기 힘든 시대에 2500여명이 선교대회에 참석한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며 “앞으로 이들의

삶에 수많은 기회와 도전, 어려움이 펼쳐지겠지만 어디서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세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현장 사역자이자 선교신학자인 그는 세계선교의 흐름과 해결과제, 한국선교 및 선교사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프랭클린 총재는 비서구권 교회가 세계선교의 주역이 되고 선교계 내 연합이 강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거 선교지역이던 곳이 선교사 파송 국가가 되고, 선교사를 파송했던 국가가 최근 선교지역이 되는 등 선교계의 지각변동이 점차 극심해지는 게 그 방증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런 현상 때문에 각국의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교방식의 변화 또한 최근 세계선교 사역에서 발견되는 주요한 흐름이다. 선교사가 일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게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요즘엔 빈곤, 보건, 난민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통한 선교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통적 선교방식만 고집하다간 질병, 테러 등 선교지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다”며 “이제는 복음 전파와 사회 문제 해결을 균형 있게 해 나가는 총체적 선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선교사는 학교·교회·병원 개척 숫자나 1대1 결연 등 눈에 보이는 결과 대신 하나님께서 선교지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에 좀 더 집중해야한다”며 “선교 업적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가 곡해되지 않도록 선교지의 사건·사고 이면에 있는 그분의 뜻을 발견하려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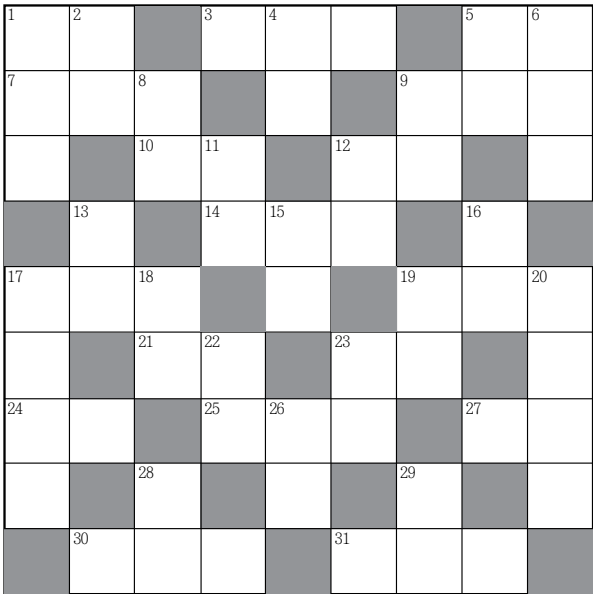
선교지와 피선교지의 문명 격차가 줄어들고 물질만능주의가 확산된 것도 선교방식에 변화를 가져온 한 요인이다. 이제 외딴섬의 원주민도 선교사처럼 스마트폰으로 이웃과 소통하고 집안에서 TV로 해외 소식을 접한다. 이런 시대에 전투적인 선포 형태의 기존 선교방식은 현지인, 특히 청년들에게 적대감만 심어준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는 “현대 선교사의 숙제는 현지인에게 적대감을 일으키지 않는 동시에 복음의 권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새로운 선교방법을 발견하는 것”이라며 “틀에 박힌 형식 대신 선교지의 교회·선교단체와 정보, 역량을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선교에 대해선 선교사들이 위험지역에 앞장서 가며 기도에 열심을 내고 파송교회와의 연합이 끈끈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미국교회 및 신학에 편중이 심하고 숫자에 너무 연연하는 모습이 아쉽다고 했다.

프랭클린 총재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전 우주적인 교회와 동역하는 것”이라며 “지금껏 한국교회가 세계선교에 많은 기여를 한만큼 앞으로도 수많은 선교단체, 지역공동체와 교류하며 더 큰 역할을 감당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십자말 • Cross Word (136)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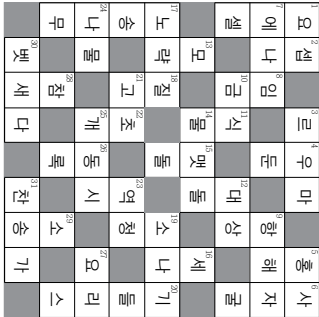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남편.
- 아브라함의 동생인 나홀의 첩(창22:24).
- 붉은 실(창38:28).
- 답나에 가던 길에 유다가 실수하여 자기 머느리 다발의 정조를 범한 곳(창38:14).
-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사람(겔26:17).
- 일정한 계율을 지키기 위해, 또는 어떤 결심을 보이기 위해 음식을 먹지 않음(삿20:26).
- 낙타를 끌고 때 지어 다니며 장사하는 무리(사21:13).
- 물매를 때리는 사람(왕하3:25).
- 때를 지어 재물을 약탈하는 행동(마7:15).
- 여름철에 감자가 퍼붓는 큰 비(왕24:8).
- 괴로움과 어려움. 고난(예3:19).
- 도로포장, 방부, 방루 등의 재료로 쓰임(솔2:3).
-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나뭇잎의 총칭(민9:11).
- 동이 트는 시간. 때(창44:3).
- 맛난 음식을 만들(삼상8:13).
- 가버나움 근처.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요1:44).
- 하나님의 덕을 찬송하며 부르는 노래(스 3:11).

<세로 푸는 열쇠>

- 고라 사람이다(대상12:6).
- 유대 왕 히스기야의 국고를 맡고 궁을 차지한 장관인데 이방인이다(사22:15).
- 어리석고 둔함(시19:7).
-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육지같이 건넌던 바다(행7:36).
- 다니엘이 어명을 얻었다고 들어갔던 무서운 곳(단6:7).
- 근주국가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원수(답전2:2).
- 늘. 일상(살전5:16).
- 먹는 물건(욥8:16).
- 중전이 낳은 왕자(단12:1).
- 납을 해하려고 쓰는 쇠(잠22:20).
- 곡식을 갈아서 가루를 만드는 기구(창11:5).
- 올법학자니 바울의 친구이다(딤후3:13).
- 소나무과의 상록 교목(나2:3).
- 병고(사53:3).
- 남에게 무슨 일을 청함(예6:9).
- 유대평지에 있는 한 고을(수15:40).
- 지푸라기(욥41:27).
- 전에 생각했던 대로(막16:13).
- 구리에 슬은 푸른 녹(마6:19).
-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사84:3).
- 범룡상의 판결을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신21:5).

십자말 정답



Senior Pastor

Description

The Korean Christian Church (“KCC”) is seeking a Senior Pastor to serve as the spiritual leader of the church and to provide Jesus-centered and gospel-centric ministry. KCC is a non-denominational and congregational church located in Honolulu, Hawaii.

General Qualifications:

- Accredited theological seminary graduate (Masters of Divinity)
- 10 year of pastoral experience preferred
- Able to minister to Korean and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members
- Meet the qualifications set out in 1 Timothy 3:2-7

Desired Qualifications:

- Conservative theological background
- Bilingual in Korean and English
- Able to work in the US

Credential and other documents

- Resume
- Cover Letter which includes an individual mission statement, statement of faith, and personal testimony
- A copy of Masters of Divinity diploma and acopy of ordination certificate
- Two recent audio/video sermons for KCC to keep (bi-lingual sermon preferred)
- Two recommendation letters –sealed with signature and personal contact (1 professional;1 personal)

Miscellaneous

- Submit application via E-mail or postal service. All submitted documents will not be returned. KCC is not responsible for lost or stolen documents. For more information, please e-mail Pastor Search Committee.
- For those who pass paper screen, he/she may be requested additional documents and interviews.

Submission

- Address:Attn: Pastor Search Committee
Korean Christian Church
1832 Liliha St. Honolulu, HI 96817 USA
- E-mail: hi.kcc.ptc@gmail.com
- Deadline: 10/01/2016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Korean Christian Church

제 7장 사택관리와 가정살림

사모가 지혜롭게 열과 성을 다하여 목사를 잘 내조하면 목사는 목회에 큰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사모는 남편인 목사의 면류관이 된다. 반면 내조를 잘하지 못하면 사모는 목사를 괴롭히는 거주장스러운 존재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다.

1. 집안을 늘 깨끗하게 정리 정돈할 것.

사모가 교회 일에 여러 가지로 바쁘게 뛰다보면 가정 살림에 소홀이 하기가 쉽다. 가정은 온 식구가 집에 들어와서 안식하며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 그러므로 사모는 무엇보다도 가정 일에 충실하여 집안 정돈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교회 일은 다른 성도가 대신 할 수 있어도 목회자 가정의 일은 사모 자신의 몫이다. 그러므로 시간 안배를 잘해서 집안일에 소홀하지

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그래도 필자는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이 잘 정돈되어 있으면 기분이 좋고 식구들도 좋아한다. 집안에 화초를 키우면 분위기도 좋고 집에 들어와서 자신은 물론 식구들이 휴식하는데 더욱 도움이 된다.

어느 목사님은 나에게 하소연을 하셨다. “사모님 제발 사모학 강의하실 때에 사모들에게 집안 정돈 좀 잘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집안이 엉망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기보다 오히려 짜증이 나고 집에 들어오기 싫을 정도입니다.”

2. 목사님의 건강관리

목사님의 건강관리는 승리하는 목회사역의 열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 갔더니 목사님들께서 “목회는 체력싸움이다. 체력이 곧 영력이다”하면서 목회자의 건강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보았

는데 정규적인 운동을 하면서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기 때문이라고 본다.

2) 식사를 거르거나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조정한다.

목사가 바쁜 스케줄에 쫓기다 보면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식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무실에 작은 냉장고를 하나 마련해놓고 음료수와 과일 등을 채워 놓으면 도움이 된다. 바쁜 주일 1부와 2부 예배 때 계속 말씀을 전하고 또 예배 후에도 제직하나 당회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종종 식사를 거를 때가 있으니 간식 정도를 준비해 가지고 가면 큰 도움이 된다.

집에서 식사하실 때는 절대로 교회 문제를 논의하지 말고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면서 식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사시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식사시간에 전화를 받으면 식구들과의 대화시간이 방

최고의 에제르가 된다 (8)



이희숙 사모

양도록 노력해야 한다. 피곤한 식구들이 집에 들어와서 안식과 기쁨을 얻고 푸근히 쉴 수 있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가정 살림을 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성도들이 가끔 예고 없이 방문해도 당황하지 않도록 평소엔 사택을 잘 정리하며 관리를 잘해 놓는다. 빈곤을 강조하는 인상을 주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사치한 인상을 주어도 안 좋다.

필자가 병원에서 약사로 일하면서 미국인 교회를 섬겼을 때였다. 필자는 약사여서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집안을 예쁘게 꾸미고 가구도 고급스러운 것으로 장만해 놓았다. 그런데 후에 한인교회를 개척해서 사역하게 되었고 교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대접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때 어느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가정이 이렇게 잘 살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나요?”라고 말해서 갑작 놀랐다. “각정하지 마세요. 제가 약사로 일해서 번 돈으로 산거니까 목사님 사례나 잘 드리세요” 그리고 ‘It is non of your business’ (당신이 상관할 일이 아닙니다)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상한 적이 있었다. 그 후로는 성도들을 집으로 초청하는 일을 중단하기로 했다. (물론 필자가 은혜를 체험하기 전이었음). 성도들은 목사님의 가정이 잘살면 마치 자기네들이 드린 헌금을 가지고 잘 산다고 생각하니까 말이 많은가 보다.

항상 깨끗하게 집안 정리를 잘해 놓았더니 한번은 어느 권사님이 “이 가구, 새로 사셨나 보군요” 하는 것이었다. 똑같은 가구인데 손님이 온다고 해서 청소도 하고 세정제를 뿌려서 반짝 반짝하게 닦아 놓았더니 새것처럼 보인 것이다. 그 후로 손님이 오면 너무 깔끔하게 청소하지 말고 좀 지저분하게 해놓으라는 말을 하

건강은 건강할 때에 지켜야 한다. 목회는 평생 해야 하므로 장거리 마라톤 경주처럼 뛰어야 한다. 단거리 경주로 뛰면 곧 지쳐서 쓰러지기 쉽다. 목사님이 쓰러지면 목회는 끝이라고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을 쓰시기를 즐겨하신다.

다. 그것은 목사님의 건강은 곧 교회의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1) 피곤하여 지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목사가 과중한 임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바쁜 일과에 쫓기다 보면 항상 긴장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다. 그리고 새벽기도를 인도하는 것부터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하고 심방을 하다보면 수면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사모는 남편 목사님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어야 한다. 가끔씩 쉬는 시간에는 전화를 받지 않도록 한다. 주일을 위하여 토요일 저녁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외출은 금물이다. 식생활을 잘 조정해드리고 정규적인 운동을 꼭 하도록 내조를 잘해야 한다.

지쳐서 병이 난 후에 조리하는 것보다 피로를 미리 예방해야 꾸준하게 목회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다. 건강은 건강할 때에 지켜야 한다. 목회는 평생 해야 하므로 장거리 마라톤 경주처럼 뛰어야 한다. 단거리 경주로 뛰면 곧 지쳐서 쓰러지기 쉽다. 목사님이 쓰러지면 목회는 끝이라고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을 쓰시기를 즐겨하신다. 필자 부부가 은퇴 후에도 계속 세계 방방곡곡에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자신

3) 매주 규칙적인 운동을 하여 육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

운동은 필수이다. 아무리 바빠도 스케줄에 꼭 넣어서 정규적인 운동을 하도록 시간을 내야 한다. 남편 목사님은 아예 자기 스케줄에 운동하는 날짜와 시간을 적어 놓고 정규적으로 운동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4)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도록 한다. 목사는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문제를 총괄하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비난과 비판을 듣게 되므로 마음에 불쾌감을 갖기 쉽다. 또한 교인들의 문제나 아픔 어려움이나 슬픔을 당할 때 목회자는 그것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 함께 고통을 당할 때가 많다. 그러므로 사모는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위로하고 힘을 줄 수 있어야 한다.

5) 영적 건강 사모는 남편 목사가 주님과 깊은 영적 기도의 시간과 말씀 묵상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협조해야 한다(QT 경건의 시간을 활용한다).

hslee39@sbcglobal.net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사울의 죽음 후라(삼하1:1)

사무엘하는 다윗의 등극으로 시작해서 그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국의 군게 다져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의 왕국과 그의 훌륭한 통치는 이방 나라의 왕정체제와는 완전하게 다른 체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다윗의 통치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해 통치하는 신정왕국요 신정정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통치는 앞으로 올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의 통치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 개인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깊이 연구해 그 마음을 닦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화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삼하1:2-4)

앞으로 다윗의 놀라운 성공과 축복과 형통함을 보게 되지만, 이러한 놀라운 성공과 축복 뒤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숨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다윗이 그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살펴보았지만, 이제 그가 왕이 돼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생생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마음속에

품어왔던 목회의 꿈과 비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는 것이며, 한 사람 한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 싸우다가 패하고 자결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블레셋을 막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 네가 어떻게 아느냐?(삼하1:5-10)

본문의 “아말렉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 아말렉 사람처럼 살면 죽는다”라는 귀중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발견을 위해서 남의 아픔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말렉 사람이 사울왕이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죽었으면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죽음을 자기의 성공의 지름길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용해서 내가 출세해보겠다고 하는 아주 나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악한 생각을 완전히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남의 좋지 않은 소식을 소문내서 자기가 뭔가 이득을 보려고 하면 결국 내가 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오히려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목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삼하1:9-10)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는 대로 솔직히 말했으면 다윗은 그에게 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자기 공로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다가 오히려 단칼에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해 유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더 잘될 줄 알지

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항상 진실이 승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해야 합니다. 설사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했어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잘못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변호해주십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아말렉과 같은 생각이 영원히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나이다(삼하1:11-12)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울며 금식했습니다.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백성들의 죽은 것이 너무 마음 아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남의 아픔을 함께하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만 슬퍼한 것이 아니

라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약 사울왕을 그들을 괴롭히는 원수로 미워했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픔을 같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족과 성도 한명 한명, 때로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을지라도 성령의 따로 하나님된 지체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쁨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토 네가 어찌하여(삼하1:13-16)

오늘 본문 교훈은 하나님께 기쁨 부음을 받은 자를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상 24, 26장 그리고 삼하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계속 강조하라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 부은 종을 함부로 하면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울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지만 다윗은 한번도 사울왕을 욕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부은

왕을 존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이단성이 있거나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면서 목회자가 조금만 부족하고 허물이 보이면 사정없이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늘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쁨부음 받은 종들을 존경합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l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원우본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주)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6(교목관) VIA DEI QUINTILIA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광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절은이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8754~5 군포시 금암동 870-10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신사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7길 29(방이동) www.shinchon.org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성주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강남 향원시 신사동 불로동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준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천동 302-67 (140-031)	



shalom의 교육학(2)

Shalom



이희갑 목사
(아주사퍼시픽 대학교 교수)

상을 이기는 교육

교육제도의 방향을 바꾸자

필자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책을 접하면서 Albert Wolters의 책 Creation Regained(한국어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음)만큼 감동을 받은 책이 없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 교사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 타락, 구속의 과정으로 소개하면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혼돈에 빠지고 피조세계에 죄가 관영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 죄에 깊이 빠진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자연적 우주질서와 세상 사회기관을 창조하셨는데 죄에 깊숙히 빠져있는 피조기관을 모두 멸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서 Wolters 박사는 구조(Structure)와 방향(Direction)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을 그는 구조라고 불렀는데 비록 죄가 광범위하게 피조세계를 오염시켰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목적(구조)까지 파괴시킨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을 창조하시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는데, 죄가 가정제도까지 침투하여 일부일치제도가 무너지고, 동성결혼 혹은 많은 다른 오염된 것들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목적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고 가정 및 결혼제도를 없애야 하는 것인가?

춤, 음악, 예술 이런 모든 제도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창조된 원래의 목적(구조)에 죄가 침투된 이래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가? 그렇다면 모든 음악, 춤, 예술기관을 없애야 될 것인가? Wolters는 비록 죄가 강력하게 모든 피조의 세계를 더럽혔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목적(구조)까지 변경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다고 말한다. 죄에 빠진 피조세계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잔존해 있다는 것이니 포기하지 말아야 주장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는 우리에게 방향(Direction)을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한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훼손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할일은 왜곡된 방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래로 모든 피조 제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람들 중심의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다는 것이니 우리는 모든 사회제도와 기관이 이런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향으로 바뀌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장황하게 구조와 방향을 설명한 이유는 오늘날 잘못된 공교육제도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주고자 함이다. 오늘날 공교육의 붕괴를 많이 이야기한다. 기독교의 가치로 나라를 건국했던 미국의 교육제도가 반기독교적인 요소로 너무 많이 오염되어 왔고 불행하게도 앞으로 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때에 기독교인들, 특히 크리스천 학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필자는 세 가지 대안을 가지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세 가지 교육제도

기독교 가치와 세상의 교육제도와와의 관

의 현실보다도 훨씬 어려운 영적 환경에서 당시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신앙적 가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세상의 공교육에 자녀를 보낸다는 것, 물론 심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의 확고한 믿음이 있는 이상, 전혀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필자는 현재 공교육 학교기관에 가르치는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자의 거룩한 소명의식과 사람의 가치 하에 아이들을 계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필자는 그들에게 날마다 강조하고 있다. 이 시간 방방곡곡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록 공교육에서 기독교의 가치를 떼뺏히게 내세우지는 못하지만)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크리스천 선생

공교육에 관심 갖기, 세상 교육제도 분별, 분리...부모교육 중요성 강조
교사에 관심, 대안프로그램 지원, 학교발란티어 및 교육개혁운동 참여

계를 살펴볼 때 필자는 세 가지 유형의 개선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1)세상의 교육제도를 이용하는 방안
첫째 방안을 논의해보자. 구조와 방향의 설명과 관련하여 우리는 기존의 학교제도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사탄이 망쳐놓은 교육제도여서 우리의 자녀들을 망쳐놓는 위험하다고 하여 아예 기존의 공교육을 대안에서 제외시켜 놓아야 하는가?

필자는 공교육이 기독교인들이 사탄과의 영적 마지막 전쟁터라고 확신한다. 이미 우리는 많은 전투에서 사탄에게 패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교육을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상의 공교육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이 남아 있으며 비록 방향이 심각하게 어그러졌을 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목적이 남아 있는 한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이 진행되도록 영적 전쟁을 부단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기억하는가? 그는 이집트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되어서 당시로서는 가장 최고의 반기독교적 가치를 가진 이집트 교육을 받고 자란한 사람이다. 그가 “예굽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였다”(행 7:22)고 성경은 기록한다. 당시 이집트는 다신교를 숭상하였으며 바로는 신이 육체로 인간 세상에 내려온 존재로 간주되었다. 모세는 성경적 가치가 전혀 차단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어둠에 지금



님들이 계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공교육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신다.

그렇다면 크리스천들이 공교육에 대해 어떻게 개입하여야 하는가? Barna Frame 2014년 조사에 의하면 크리스천들은 교사들에게 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했으며(36%), 대안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25%)하였다. 또 학교 발란티어 활동(24%) 및 국가적 교육개혁 운동(24%)에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공교육! 절대 포기하지 말자. 있는 힘을 다하여 지켜 나가도록 하자.

2)세상의 교육제도를 분별하는 방안
세상 문화와 세상교육을 따르지만 그것의 한계점을 스스로 알고 이를 분별해 내는 형태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가 그랬다. 그들은 10대 초반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양심에 따라 이방신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 없어 채식으로만 10일을 먹겠다고 담대하게 제언했고 이는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안으로 삼으셨음은 물론이다.

당시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는가? 그의 주위에는 많은 우상숭배자,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로 둘러 쌓여 있었다(단6:4). 다니엘 5:4를 보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풍요들은 모두 배반자들이어서 어떻게 하면 그들 넘어뜨릴까 고민했다. 그런 문화 속에 다니엘은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그렇다고 그는 세상문화와 동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 세 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놓고 한결같이 매일 기도를 드렸던 그였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믿음의 거목으로 만들었을까? 그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분별해 내고 이를 실천한 사람이다. 것처럼 뛰어난 사람이 있었던가? 그는 어릴 때 끌려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의 3대 왕조에 걸쳐 중용된 사람이다. 그는 체계적인 믿음의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도 아니고, 어릴 때 이방 땅에 포로

창세기 6:5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지으심을 한탄하시...” 왜 하나님이 한탄하셨는가? 창6:4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계속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들이 용사가 되었다... 용사란 명성이 있는 사람, 권력과 힘을 쥐고 세상을 흔드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배한 세상에서 노아는 그의 세 아이들을 세상과 분리되어 교육을 시켰다.

노아가 살고 있었던 때 세상의 풍조는 네피림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유명한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연예인 아이들이거나 금수저로 태어나 자란 아이들을 우러러 보는 시대였다는 것이다. 노아 또한 그의 자녀들을 세상문화에 따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어찌 없었겠는가? 그러나 그는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흠스쿨링을 하였다.

방주를 만드는 120년간 저 밑에서 온갖 조롱하는 소리, 손가락질하는 세상 사람들과 반기독교적 가치 앞에 노아와 그의 아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세상이 주는 가치를 좇지 않고, 세상과 분리시킴으로 그들은 자녀를 성공적으로 양육했던 것이다. 노아와 그의 아내(우리는 이름을 알 수 없지만)도 놀랍지만 부모의 신앙대로 순종했던 세 아들들도 참으로 관참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아직도 기회는 있다

세 가지 형태의 교육을 보는 관점을 소개하였다. 세 가지 방안 모두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아이들의 신앙의 성숙정도, 부모님들의 의지와 믿음의 결단에 따라 어느 유형이든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주어진다면 모두 성공적인 신앙교육의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강조하는 것은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다.

성공적인 믿음의 자녀로 키워낸 사례들을 점검하면 모두 그 뒤에 부모님들의 믿음의 헌신과 결단이 있었다. 절대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지 마시라. PTA미팅에 적극 참여하고, 아이들의 커리큘럼을 함께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아이들을 어떤 특정한 행사(예를 들면 하비 밀크데이: 동성애자인 이 사람을 기념하기 위하여 캘리포니아는 5월 14-25일 사이에 학교별로 행사를 치르도록 했다)에 참여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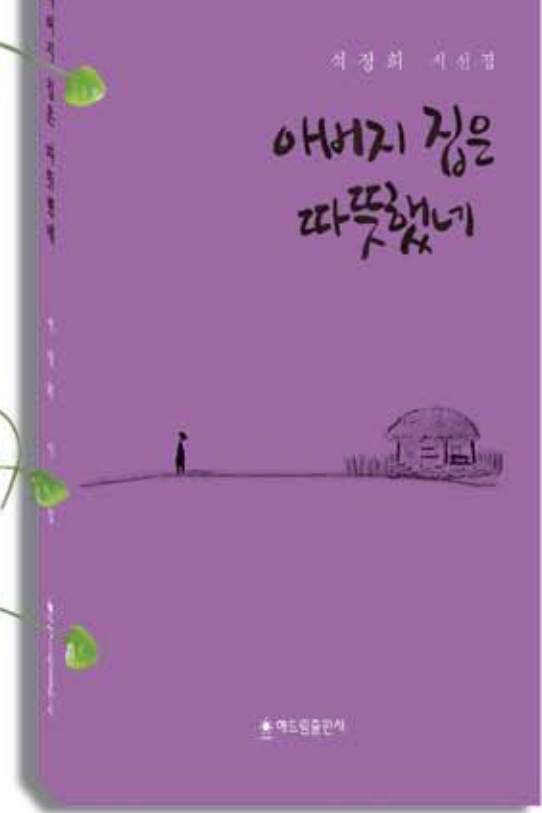
또 기독교 학교에 보낸다고 아이들이 저절로 신앙이 자란다고 생각하지 말라. 자녀가 크리스천학교에 다닐지라도 학교 선생님들과 끊임없이 연락하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고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함으로써 아이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필자가 늘 사용하는 말이 있다. “잘못된 자녀는 없습니다. 다만 잘못된 부모만이 있을 뿐입니다.” 부모교육의 중요성!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자세히 논하고자 한다.

hlee0414@gmail.com
(계속)

석정희 시선집

아버지 집은
따뜻했네



좋은 옥수수만 골라 씨옥수수로 삼دت

석정희 시선집 <아버지 집은 따뜻했네>는 제4시집 [엄마 되어 엄마에게] 등에서 울림이 큰 시만 선정한 여였다. 좋은 옥수수만 골라 씨옥수수로 삼دت, 일과 덩굴을 헤치며 주위 담는 밤톨 하나하나 정성스레 고르듯, 이번 시선집은 모국어로 묶은 3권의 시집의 2백 5십여 편 시들 중에서 고르고 고른 것이다.

서정·길·생명·신비·그분

석정희 시인이 꿈꾸는 삶이란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사랑하고 화합하고 연대하는 삶이다. 석 시인처럼 아주 소박하게, 선량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신은 사랑할 것이다. 대체로 석정희 시인의 시는 따뜻하다. ‘아버지 집은 따뜻했네’의 “신문지 깔고 누운 노숙자들 / 잠이 들면 옛 꿈이 보일까”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저 따뜻하고 포근하다. 그리고, 일상이 내지는 생활사가 많이 보여 미국에서의 삶의 양태를 조금은 파악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아버지 집은 따뜻했네>
이승하(시인, 중앙대 문창과 교수)

미래의 꿈을 향해 다가가는 경건한 삶의 자세가 잘 나타나 있다. 더욱이나 단아한 여성적인 어법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어서,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적 삶의 세계가 극히 서정적으로 부드럽게 순화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언제 읽어도 싫증이 나지 않는 시, 그래서 늘 잔잔한 감동을 주는 시, 이러한 시가 결국 좋은 시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가 바로 생명이 긴 가치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 건너에서도 피는 모국어의 꽃>
박영호(시인, 문학평론가)

칠기 반상 앞에 다소곳이 앉아있을 시인은 이 세상과 영혼의 세계를 오르내리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 보다. 고추잠자리가 날아간 하늘 속 끝닿은 곳에 숲이라니, 아마도 이것은 시인의 이상향 아니면 천국일 것이다. <가을> 시에서 고추잠자리를 매체로 하여 현실(1년)과 영적 세계(3년)를 이어주는 신앙적 알레고리로 볼 때 지극한 상징과 암축으로 신앙의 경지를 수놓은 솜씨가 대단하다.

-<KOREAN DREAM> 2004년 12월호
최선호(시인, 문학평론가)



석정희 시인

·임대출판
·CEO출판
·출판매니저

해드림출판사

02) 2612-5552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82길 3-4
(문래동1가39) 센트럴플러스빌딩 1004호

*이 책은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에스24, 인터넷파크도서, 알라딘, 영광도서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